

지구촌 곳곳에서 파괴와 핍박과 불화가 점
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심
과 섬리는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고 우
리 마음의 평안이 가정에서부터 이웃에
게, 이 사회와 국가로 확장되어도록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
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
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
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1월 26일 (토) 제 161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서구권, 포퓰리즘 급부상 경계

트럼프 당선 후 더욱 분명해져...포린어페이스, 배경과 분석 보도(1)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동의할 수 있는 말이 있다. 바로 트럼프가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하지만 더 큰 흐름 속에서 트럼프는 그다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최근 서구에서 급부상 중인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포퓰리즘은 주류에 도전하는 세력이지만, 헝가리 같은 나라에서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는 등 점차 대중을 사로잡으며 힘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포퓰리즘(Populism)은 대중주의(大衆主義) 정치철학으로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된다. 한마디로,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이다.

포퓰리즘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모든 버전에는 공통점이 있다. 엘리트와 주류 정치인, 기독교를 향한 의심과 적대가 바로 그것이다. 포퓰리즘은 흔히 "잊혀진 보통사람들"을 대변하고, "진정한 애국자들"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역시 2016년 4월 월스트리트저널에 "수십 년간 소수의 엘리트가 망쳐놓은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해답은 과감한 대중 의지의 주입뿐이다, 이 나라에 영

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 사안에서 대중은 옳고 지배 엘리트들은 틀렸다"고 썼을 정도로, 엘리트로 대변되는 지배 계층과 보통 사람들로 대변되는 피지배계층으로 미국사회를 양극화시켰다.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에서 "오스트리아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노르베르트 호퍼는 상대 후보에게 "당신 뒤에는 상류사회가 있지만, 대중은 나와 함께 한다"고 선했을 정도로, 지금 서구권은 포퓰리즘 쓰나미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포퓰리즘이 주는 유평파적 신화와 사회를 "적 아니면 동지"라는 가르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예수는 포퓰리즘이 아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선포하셨고, 엘리트이건 가난한 자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등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린어페이스'는 서구권에만 선포적으로 맹위를 발휘하고 있는 포퓰리즘을 문화적 시각으로 해석한다(Populism on the March: Why the West Is in Trouble). 그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3회에 걸쳐서 연재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적 포퓰리즘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에는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두 부류가 공존하고 있다. 서구에는 늘 주류 좌파 정당을 가리켜 시장 친화적이고 대기업에 타협적이라고 비난하는 극좌파가 존재했다. 하지만 냉전을 거치면서 서구의 좌파 정당들은 대부분 중도에 가까워졌고,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좌파 포퓰리즘이었다. 하지만 2007-8년의 금융위기 전까지 그 틈은 비어 있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산을 잃고,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이 치솟자, 마침내 포퓰리스트들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새로운 좌파 포퓰리즘의 의제는 구 좌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좌파 포퓰리스트 정당들마저도 30년 전보다 중도에 가까워진 것이 특징이다.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나 집권했을 때도 실제로 펼친 정책은 이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들은 좀 다르다.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오스트리아의 자유당은 이미 주류 정치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물론 모든 나라가 우파 포퓰리즘의 유혹

에 넘어간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과거에 우파 독재를 경험했던 스페인은 여전히 우파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우파 포퓰리즘의 극단을 경험했던 독일에서 독일대안당이 부상하고 있는 것은 놀

라운 현상이다. 그리고 미국에선 트럼프가 등장했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는 단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달리 볼 근거가 많다.

<3면으로 계속>

부모 삶속에 하나님 보여야 자녀도 하나님 찾는다!

처치플랜츠, '하나님 우선' 가정교육 중요성 소개

웨스터민스터신학교 교회사 수업 중 질의응답 시간에 칼 트루먼(Carl R. Trueman) 교수는 한 학생으로부터 오늘날의 교회가 왜 젊은 성도들을 잃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질문이 거론될 때면 보통 "세상의 유혹" 또는 "교회와 사회의 이질감"과 같은 답변이 가장 빈번히 등장한다. 하지만 칼 트루먼은 이 질문에 대해 가정교육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며 그가 통찰하고 있는 바를 설명하였다(How Skipping Church Affects Your Children: The church is losing its young people because the parents never taught their children that it was important).

칼 트루먼: "교회에 젊은이들이 점점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이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단 주일성수뿐 아니라 기독교와 신앙심의 많은 부분이 충분한 부모 역할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고 봅니다. 가정예배, 주일성수, 그리고 그 외의 기독교 가치관들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들 모두 동일합니다. 화창한 주일날 아침, 친구들이 모두 해변가로 놀러가는 것을 보면서 당신 또한 그들과 똑같

에 보였던 시간의 우선순위를 통해 부모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성실히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목도하지 못한 것이다.

SNS, 텔레비전, 스포츠, 학교, 취미생활, 그리고 심지어 가정 모두 인간이 어떤 것을 우선처럼 여기며 크리스천의 소임을 대체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부모들의 우선순위와 선택을 통해 암묵적으로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 같다. 부모의 행동과 양육법을 통해

"부모 우선순위에 하나님 없으면 자녀들에게도 없다"

'세상 유혹' '교회와 사회 이질감' 보다 가정교육이 더 큰 문제

이 바닷가로 놀러가고 있진 않나요? 자녀들에게 주일성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들을 알게 모르게 전달한 적은 없나요?"

물론 표면적인 주일성수가 구원의 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와 진정한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의 올바른 역할과 시간의 우선순위, 생활방식과 가족의 가치관 등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책임의 무게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주일은 물론 평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둬된 자기부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친 셈이다. 편리할 때만, 편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가르쳤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들은 구원자 되신 주님과 시간의 "조금 더 재밌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타협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당연히 이런 환경과 가르침 안에서 아이들은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어디에 닿아있는지 점검해보자.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뇌-환경 영향 연구 과학적 혁명은 이제부터! 2면	 아는 게 힘이다 새라김 사모 5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16면
---	--	---	--	--



WE THE MESSENGERS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리라 말라기 31

ROCHESTER '16

GLOBAL KINGDOM YOUNG ADULT MISSION FESTIVAL

2016년 12월 27-30일

지금 신청하세요
18세 이상 / 대학생

1 차등록 마감 \$250 10월31일
2 차등록 마감 \$300 11월30일
3 차등록 마감 \$350 12월23일

숙박/식사 포함

GKYM 키즈
(5세-12세) \$150 (고정회비)

GKYM 유스
일반등록과 같은 회비입니다 (13세-17세)

문의
www.gkym.org
rochester@gkym@gmail.com

주강사/크리스찬 아티스트

 조지 배워 OM 청림사	 임 은미 케냐 선교사	 마이클 오 국제 로잔운동 총재	 유 제이 케이팝 스타
 김 혜택 뉴욕 중신교회 담임목사	 찰스 지머만 갈보리 교회 담임목사 및 바블리컬 신학교 교수	 노 승환 토론토 밀알교회 담임목사	 AMP 크리스찬 래퍼
 정 민웅 캐비닛 헬로섬 교회 담임목사	 박 형은 중앙 선교교회 담임목사	 백 승환 미아메이 커버넌트교회 담임목사	 장 종택 천안 사역자
 노 희순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목사	 김 은열 뉴욕 중신교회 EM 목사	 마크 최 뉴욕 IN2교회 담임목사	 브라이언 김 천안 사역자

LOCATION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HYATT ORGANIZATION GKYM INTERNATIONAL GLOBAL KINGDOM YOUNG ADULT MISSION FESTIVAL

뇌-환경 영향 연구 과학적 혁명은 이제부터!

뉴스위크, 학습성과 좌우하는 뇌 부위의 발달 방해 요인 보도(하)



시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올 한 해는 예년보다 매우 부산스러웠던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일년내내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 뉴스에 매달렸던 것이 마음을 요란하게 하였다. 클린턴 대 트럼프의 구도가 서로 너무나 막막하기로 진흙탕 싸움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뿐이었다. 워낙 선거 당일 까지도 예측을 불허한 혼란이었던 데다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놀라는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어찌 힘들지 않았겠는가?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발 빠르게 집권을 준비하며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 200여만을 추방한다고 공언하면서 정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런 행보로 인해 소수계에 속하는

우리들에게 불이익이 찾아오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게다가 한국에서 실시간 들려오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한 충격적인 뉴스로 정신이 쉴 틈이 없었다. 캐변 캠퍼스 또 다른 뉴스거리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니 아직도 어안이 병병할 뿐이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지만 대통령은 국정의 마비를 명분으로 탄핵을 당할지언정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친 형국으로 앞으로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사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번 선거는 가치관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후보는 온갖 추문과 그다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다. 한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방위비 분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며, 어렵사리 체결한 한미 FTA를 재검토하겠다고 외쳐대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미국이 살 길은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외치고 있는 목사의 입장에서 기독교적 가치관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런 면에서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당장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을 선임하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중요 결정사항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고 있는 세대에 물려줄 이 나라를 반 기독교적인 진보 진영의 후보에게 내 소중하고 한 표를 내어준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하나님은 트럼프 후보의 손을 들어주셨다. 그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기성정치인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아웃사이드로서의 신선한 모습 때문도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의 평생의 주제였다. 그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재자이심을 철두철미 믿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간다(롬11:36)는 사상이 그의 신학의 대전제였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 역시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사55:8,9). 하나님은 그분의 높으신 뜻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 가시는 분이시다. 누구라서 감히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루어가실 것을 믿으면서 누구를 지지했든지 우리는 함부로 교만하거나 낙심해선 안 된다.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 한인의 65%가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다는 통계를 보았다. 아마도 그녀가 부도덕한 말과 행실의 트럼프 후보보다는 그래도 윤리적인 면에서 더 낫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남성 위주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뜨리게 하고 싶고, 소수계를 더 배려하고, 대한민국에 더 우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나 역시 선거 당일까지도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나 싶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싸운 그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패배를 인정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의 전화를 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패배가 결코 초라하게 보이지 않았다. 또한 패배인정 연설에서 자신이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성경을 인용할 때 많은 감동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반 트럼프 운동을 벌일 정도로 미국은 이번 선거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선거 국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선도해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한 편을 들기보다 이 모든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하루 두 번 두 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가나안농학교 김용기 장로의 구국기도실 좌우 기도에는 이런 글자가 써있다고 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겨레여 안심하라.”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한 때이다.

매일 수십 명의 폭력적 범죄자를 만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어둠 속에서 언제든 튀어나와 나를 구타하거나 돈을 뺏아 가져가 강간하거나 총으로 쏠 수도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상 분비되다보니 얼마 후에는 그 양을 줄이기가 힘들어진다. 뇌는 언제나 투쟁-도주 상태에 놓인다. 만성 스트레스는 줄기세포와 뇌세포 연결, 신경의 발달을 저해한다. 임포르디노-양의 연구는 이런 환경에 놓인 피험자의 경우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 윤리적 결정, 안정적 감정 유지 능력을 온전히 발달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의 뇌 활동은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고 발달 및 체계 또한 미숙하다”고 임포르디노-양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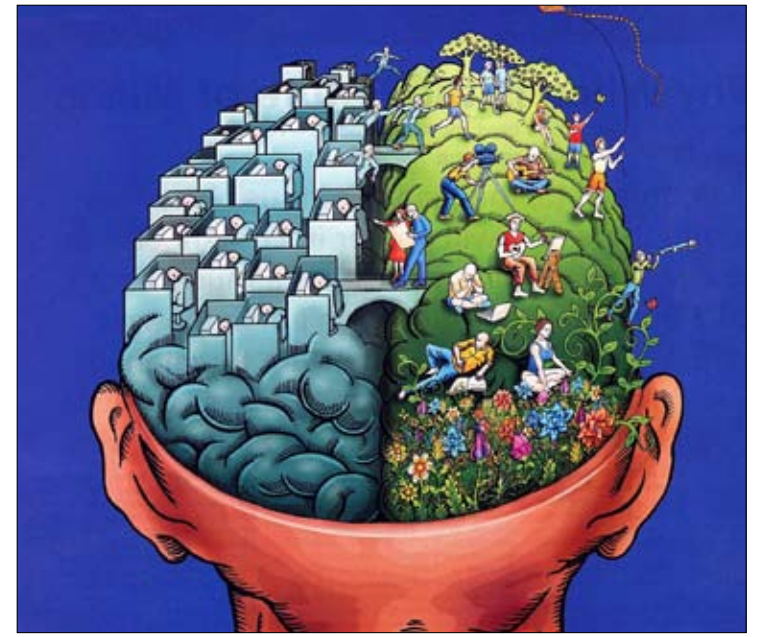
불안정한 가족과 학대, 방치 또한 비슷한 해를 끼친다. 생물-신경학적 영향은 아동과 10대 청소년뿐 아니라 신생아와 유아에게도 영향을 준다. 위스콘신-

등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인종주의를 정당화하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

“이들 연구 결과가 새로운 우생학적 연구로 쓰일 위험이 있다”고 코네티컷 대학의 사회학 부교수 매튜 휴이가 말했다. “가난한 사람의 뇌는 달라”라고 손쉽게 내뱉는 말은 너무 간편하고 무섭다. 명백히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미시간대학 국가빈곤센터 자료를 보면 특정 소수집단의 경우 빈곤율이 미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이 사실이다. 미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라 2014년 평균 14.8%였던 빈곤율을 인종별로 나뉘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26.2%, 라틴 계열은 23.6%, 아시아계는 12%, 백인은 10.1%였다. 빈곤이 각 민족집단에 고루 분포돼 있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통계다.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과학이 설명한 대로 인



상적 뇌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요소가 모두 합해지면 학습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아프리카계 백인보다 빈곤의 탓에 간헐적 학력이 왜 더 높은지 도 알 수 있다.

뇌가 작아진다는 주장은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층에 대한

은 말했다. “조사 결과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과학을 잘못 전달하는 것이다. 뇌는 운명이 아니다. 가족 소득을 기준으로 아동의 뇌 크기를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부모의 소득수준은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고 손코프 박사

빈곤은 소득수준으로만 결정 안 돼...교과에 사회 감정적 학습내용 추가 15-30세는 제2의 뇌 성장기...자녀에게 안정감 주고 대처기제 가르쳐야

매디슨 대학 연구진이 77명의 아동을 연구한 결과 저소득 가정의 자녀는 최소 5개월째부터 부유한 가정의 아기 및 유아와 비교해서 전두엽과 두정엽의 회백질이 감소한 것이 발견됐다. 이는 다른 연구 결과와 함께 가난이 뇌 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뇌 발달은 시작 단계에서 뒤처지면 결코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

“가난이 아동 뇌 발달을 저해한다” “가난은 태어날 때부터 뇌를 축소시킨다” “가난할수록 의사결정을 못하는 이유” 등 새로운 신경학 연구의 제목을 보면 경악과 우려가 교차한다.

손코프 박사는 이런 언어 사용이 “위험하며 견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평균적으로 회백질과 표면적이 감소했다”고 말하는 것과 “그래서 너의 뇌가 손상됐다”고 결론짓는 건 엄연히 다르다. 이는 부당하게 낙인을 찍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맥락 없이 볼 경우, 가난과 뇌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내용은 인종별 지능 격차나 ‘빈곤층은 날 때부터 열

지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은 소수 민족 청소년은 또 다른 점을 짚어지게 된다고 루이빌대학 아프리카 지역학 부교수 W 카슨 바이어드는 말했다. 관련 연구와 제목을 기준 삼아 소수민족 아이는 “백인 아이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편견이다. 미국에서 가난한 소수민족 아이로 성장했다는 것만으로 뇌 발달이 저해되는 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빈곤이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과 사회가 가난한 소수민족을 대하는 방식은 분명 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소수민족의 경우 위험하고 낯선 건물에 산다. 거주 환경의 차별과 함께 학교에서는 교사가 은연 중에 보내는 인종차별적 편견이 있다. 빈곤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겪는 학교와 영양실조는 정

좁은 시각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바이어드 교수는 말했다. 이는 흑인은 뇌 용적이 작아서 유럽인보다 지능이 열등하다는 과거 영타리 과학자들의 인종적 편견을 그대로 반복하는 위험한 행동이 된다.

뇌 과학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자들은 대중문화나 언론 기사, 심지어 연구 초록에서조차 연구 결과가 지나치게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동의했다. “상관관계가 경우 입증된 내용을 인과관계로 보도한다”고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연구를 이끈 컬럼비아대학 신경과학자 킴벌리 노블

는 말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도 뇌에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도 많다.” 빈곤은 소득 수준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가정내 폭력이나 학대가 아이의 신경생물학적 발달을 저해시켰다는 결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폭력만이 지배하는 슬럼가에서 자랐어도 부모가 이들을 보호하고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감정적 준비를 시켰다면 얼마든지 안전함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서구권, 포퓰리즘 급부상 경계

(1면에서 계속)

정치학자 저스틴 제스트(Justin Gest)가 영국 극우정당의 공약(대량 이민 중지, 미국의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기독교문화 보존, 이슬람위협 저지 등)을 미국의 백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정당이 있다면 지지하겠다고 물었을 때, 무려 65%가 그렇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주의는 트럼프보다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스트의 결론이다.

새로운 포퓰리즘의 부상은 과거 포퓰리즘을 겪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과 한국 같은 선진국을 포함, 아시아에서는 포퓰리즘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과거 좌파 포퓰리즘으로 흥역을 치른 남미에서도 지금은 포퓰리즘이 잠잠한 상태다. 반면 유럽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포퓰리즘이 득세하

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로널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와 피파 노리스(Pippa Norris)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유럽에서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이 얻은 표는 2배, 좌파 포퓰리스트 정당이 얻은 표는 5배 늘어났다. 2020년이 되면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은 유럽 전역에 걸쳐 의석의 13.7%를, 좌파 포퓰리스트 정당은 1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 결과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정치에서 경제라는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정치는 여전히 큰 정부 지출과 높은 수준의 복지, 기업 규제를 정책의 골자로 하는 좌파와 작은 정부, 소극적인 복지, 자유방임을 추구하는 우파의 대결이다. 유권자들의 투표 경향을 봐

도 대체로 노동 계급이 좌파를, 중상류층이 우파를 선택하는 구도가 기본적인이다. 어떤 사람의 정치 성향을 추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척도는 여전히 그 사람의 수입이다.

하지만 잉글하트와 노리스는 이런 투표 패턴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에는 계급 투표 경향이 영국, 프랑스, 스웨덴, 서독에서 최저치로 내려앉았고, 1990년대가 되자 미국에서는 계급 투표 경향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경제적 지위로 사람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소득 수준이 아닌 낙태나 동성결혼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에 따라 공화당 지지, 민주당 지지로 갈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 각 당의 공약을 정리해보아도 1980년대 이후 경제 이슈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오히려 젠더, 인종, 환경과 같은 비경제 이슈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부모 삶속에 하나님 보여야 자녀도 하나님 찾는다

(1면에서 계속)

당신은 교회를 우선시하고 있는가? 가정과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학교나 직장문제가 겹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 물론 절대로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란 뜻은 아니다. 우선순위 목록의 하단에 하나님을 두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선택을 보면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고 부모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밑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속해선 안될 곳이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개선하기를 기도한다. 심지어 이 문제점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반드시 명심할 것은, 부모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뇌-환경 영향 연구 과학적 혁명은 이제부터

(2면에서 계속)

부모님과 교사, 기타 성인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대처기제를 가르쳐줘 '투쟁-도주' 체계가 끊임없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역경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다시 일어선다도록 뇌를 보호하는 완충제를 얻게 된다. "스트레스 수준을 기준으로 끌어내리고 폭력 혹은 빈곤의 짐을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축하게 된다"고 손코프 박사는 말했다.

범죄 및 오염, 인구과밀과 학대를 줄이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한편, 0-5세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아동행동학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새로 도입되는 프로그램은 아동뿐 아니라 빈곤 속에 자라선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익히지 못한 어머니, 그래서 자녀에게 이를 제대로 가르

하기 위한 예산의 재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현실로 이끌기 위해서는 의회나 지방정부, 학교, 이사회, 사법제도의 힘이 필요할 수 있다. 2013년 뉴욕대학 신경과학교육연구소의 클렌시 블레어는 가난과 혼란으로 가득한 가족 속에서 보낸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분비량 증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과거 담배와 고당분 음료, 정크푸드와 유해성을 연결하고 정책 및 규제를 변화시켰던 상관관계와 동일한 증거 능력을 갖는 연구결과라는 더 있다. 블레어의 연구 결과 또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주거지역, 감당할 수 없는 주택가격 및 데이케어센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를 지원하거나 기념비적 소송을 이끄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열악한 학교와 지역사회 인프라, 치안 불안, 아동학대 방지, 오염된 환경, 의료서비스 및 대중교통과 녹지 부족 등 빈곤의 골레를 강화하는 시스템 또한 법안 제정과 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사람의 뇌와 환경이 주는 영향을 연구하는 과학적 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즉 빈곤의 사회적 스트레스가 뇌 발달 및 생물학적 발달을 변형시키고 평생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제야 정보를 밝혀내기 시작한 것이다.

질 수 없었던 어머니도 수해 대상에 포함시킨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사회 및 감정적 학습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외상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들 교과과정을 국어나 수학처럼 필수 과목으로 만드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발달지원기관의 우선순위에 대한 대대적 재평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확보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은에 나누기

시편150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시편 마지막 편입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란?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살전5:18).

시편에는 현실의 삶 속에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그 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절망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견뎌 주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이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인생을 사는 자로서 항상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내 만족의 창고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창고에 쌓는 것이 인생의 일입니다. 이렇게 충성히 사는 자에게 장차 주인 앞에서 크게 칭찬을 받으며 귀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증거는 우리가 아직도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활동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호흡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며 우리에게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요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인생의 계절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고 또한 범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뜻을 모르고 이기적인 생각인 사망의 생각, 걱정과 근심을 한다면 광야의 시간은 길어지지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알고 하나님의 판단을 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며 아브라함이 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나무의 뿌리가 뻗고 뻗어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뻗고 뻗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 이레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어두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두운 길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난 내 인생에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범사는 그 찬양 앞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애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또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하나님 이름 앞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하는 인생을 산 사람으로 평가를 받으실 소원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한 시편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너는 평생 불행하면서 살라! 고 말씀하셨다면 불행한 사람이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복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삽시다. 받은 복을 믿음으로 많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응답을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아멘.

sangdkim@yahoo.com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신비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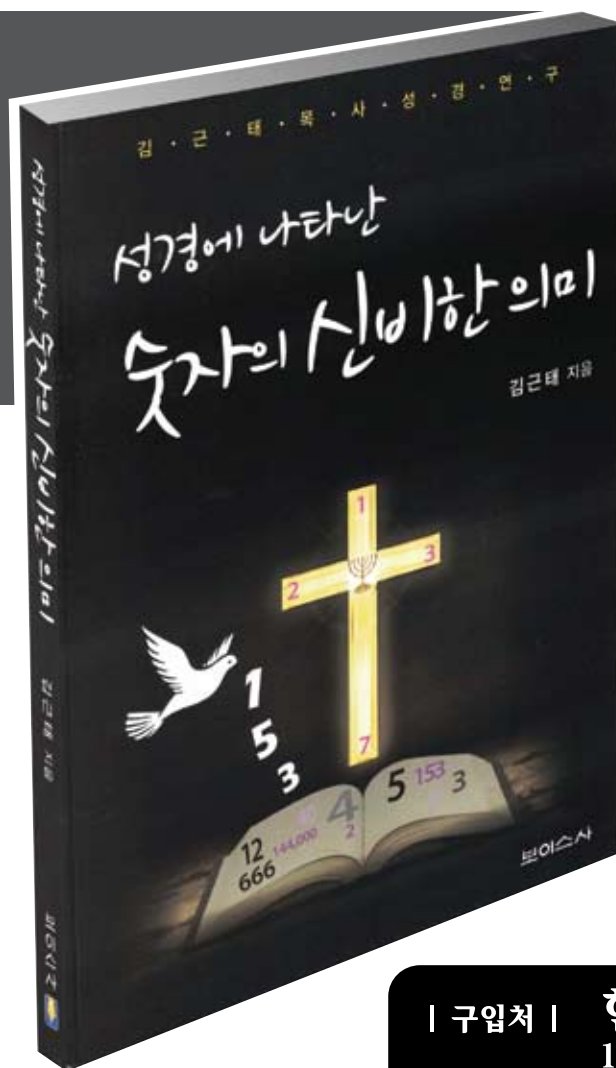
-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나? 대략 40년이다
- 그리스도의 탄생의 14-14-14대는 역사적 사실인가?
-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지파의 인구 합계 계산에 300명이 왜 틀린가?
- 동방박사들은 다니엘의 제자 후손들이었다.
- 노아의 아들, 셋이 야벳의 형이다? NO
-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며,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김근태 지음

(그린빌 새소망 장로교회 담임)

2006년, 애틀란타 교회협의회 회장
1997년, 2014년, 애틀란타 목사회 회장
2008 ~ 10년, 애틀란타 성경대학 학장



| 추천사 |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신비한 의미는 목사님께서 묵회하는 중에 성도들의 솔한 질문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간추려 만든 신비한 놀라운 역작입니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성서적인 신비와 그 숫자에 내재된 의미를 풀어 해친 귀한 지혜입니다.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인수

성경 속의 숫자는 신화가 아닌 창조주의 흔적이기에 하나님의 말 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파악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건전한 신학적 바탕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지혜를 얻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오론목자교회 담임목사 박천일

이 책은 칼빌주의적 성경 연구로 평생에 해보지 못한 설교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김현태 목사 Ph.D

\$15 + 송료

| 구입처 | 한국서적 Hankook books & promotion, inc
161-21 29 Ave. Flushing, NY 11358
TEL. (718)762-1200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에드거 앨런포의 단편소설 '고자 질하는 양심'이라는 책이 있다. 그 주인공이 사람을 죽여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지하실에 묻었다. 그 사실을 정말 아무도 모른다. 사건이 정말 완전범죄로 끝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부터 죽은 사람의 심장소리가 귀에 들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눈을 감아도 똑똑... 아니 귀를 막아도 그 소리가 들린다. 그 섬뜩한 심장의 고동소리가 계속되는데, 도무지 피할 수가 없다. 간담이 서늘하고 식은땀이 흘러서 옷이 다 축축하다. 잠도 편히 못자고 입맛도 잃어버려 음식

도 제대로 못 먹고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더니 몸도 아위어 가는데 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심장의 고동소리는 바로 자기 자신의 가슴에서 들려오는 자기심장의 고동소리였다. 무엇을 말하는가? 죄를 범하면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 양심이 소리치는 것이다. 아담은 지금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 두려움의 원인, 죄는 숨겨놓고 그 결과 두려움만 호소하는 것이다.

어떤 통계를 보면 서울 장안의 사람들 중 70%가 한번 이상은 점을 보았다고 그러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새해 벽두부터 토정비결을 보고 그러는가? 그리고 그 70%의 69%는 몸에 부적을 부친경험도 있다고 했다. 더구나 요즘에도 우리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 호주머니에 부적이 많이 있다. 왜냐고 물어보면 두려워서 부적을 몸에 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다. 우선 세상이 두렵고, 이 환경이 두렵고, 나아가 죽음이 두렵고 그래서 부적을 부치면 괜찮을까 해서 다 큰 어른들, 부모들이 그러다는 것이다. 두려움에는 원인이 법이다. 그 두려움을 느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텐데 그 원인은 알지 못하고 알고도 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원인인가? 원인은 바로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죄가 그 원인이다.

범죄 후 아담은 변경과 핑계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될 것을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만 말한다. 하나님이 회개를 독촉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며 기다리시는 시간에도 아담은 자기를 위장하는 일에만 몰두

하면서 진실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어떤 성격 고약한 사람들을 보면, 결박하면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그 아내는 또 남편 때문이라고 한다. 부부 싸움 하는 소리 들어보면 항상 자기는 빼놓고 당신 때문이라고 한다. 어린 딸이 어머니에게 질문을 한다. "왜 엄마는 머리가 그렇게 희어졌어요?" 엄마가 대답한다. "응? 딸이 엄마 속을 썩일 때마다 엄마는 흰 머리가 하나씩 나온다" 그러니까 딸이 "응? 그렇구나. 할머니가 왜 운동 흰 머리인지 이제 나도 알겠다" 그러더라. 여러분! 원망은 언제나 상승작용을 한다. 세상 탓, 조상 탓, 나라 탓, 하다가 마지막엔 하나님까지 탓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작금의 한국사태를 매스컴을 통해 접하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된다. 하나는 모든 사이비는 결국 범죄와 파고를 일삼는다는 사실이다. 영생교의 교주라는 사람, 성령이 강림한 처사라는 최태민씨 어려운 시기를 지내던 대통령의 딸을 접근한 최태민씨와 그 딸 최순실, 청와대를 내 집 드나들듯 드나들면서 세상에 나와서는 국가 질서

를 파괴하고 이권에 개입해서 불법 재산을 축적했다.

둘째는 사이비에 한번 빠지면 자신이 사이비라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사이비의 종교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다. 정신병자가 자신이 정신병자인 것을 모르듯이 사이비를 믿는 사람은 한 걸 같이 자기가 사이비에 빠진 것을 모른다. 왜냐면 이미 사이비 악령에 그 영혼이 결박당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비로 인한 엄청난 가라지 넝쿨이 사회전반에 걸쳐 여기 저기 퍼져 나오는 데도 자신은 사이비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단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사이비 가라지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더구나 우리도 이런 사이비가 즐비한 세상에 함께 살고 있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 똑바로 서야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언제라도 우리 인생도 범죄의 가라지 밭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인생도 결박을 수 없이 멸망의 계곡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 복음을 심어서 구원해내야 한다는 전도의 시급성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사이비에 빠지면 영적으로 결박되어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범죄의 가라지 넝쿨만 뻗쳐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 범죄의 원인이 사이비신앙자체인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에서 자기를 숨기는 어리석음을 또 범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인생의 방향 설정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 인생은 운동경기처럼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다. 그런데 인생의 절정은 전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후반에 있고 종반에 있다. 더구나 연장전에 풀을 하나 넣으면 golden Goal 그것으로 경기는 끝이 난다. 과거를 더 이상 비판하지 말자. 누구 원망하거나 비판 말자! 후반 중요하다 아니, 종반이 더욱 중요하다. 내 육체의 남은 때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는다. 인생이! 내가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미래, 새로운 승리를 주시려고 내 인생의 태도를 교정해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정요한 목사
(미주베델교회)



우리의 삶은 항상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있다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발전이 없고 후퇴와 퇴보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낮은 곳에서 저 높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높은 곳을 향한 선택이었는데 이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 높

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임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동서남북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삶에 목표를 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 Bill이라는 호주사람과 한집에 살았습니다. 잠잘 때만 방을 따로 쓰고 같이 TV보고 식사도 같이하며 지냈는데 이 빌이라는 친구를 보니 생의

2. 뜨거운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은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 마당에 양동이 뚜껑을 덮고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고일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내려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의 뚜껑을 열지

한 환상을 주시기 위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가로와 세로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가득 품고 그것을 종횡으로 살펴보고 기도하며 전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에 포로가 되면 부정적이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소극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괴로움과 죄가 있는 것이 아닌 빛나고 높은 저곳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닌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는 저 높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의심과 근심의 구름이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복락과 즐거움 노래가 있는 저 높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험하고 어두움이 있는 것이 아닌 빛과 사랑이 있는 곳, 또한 빛나고 높은 저곳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신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이숙 여사께서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면서 일본 앞잡이의 총칼 밑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부른 찬송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항상 낮은 곳으로부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최후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chung5505@yahoo.com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창세기 13:14-18)

찬송가 543장을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했습니다. 내 뜻과 정성모아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지

을 통하여 룯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룯은 당장 눈앞의 맑은 물과 소알 핑지라는 현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는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은 곳을 가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바라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지 않거나 잘못 설정하면 일대 낭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내 욕심 내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안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살면 망할 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35살이니까 5년 후엔 40살이 되면 어떻게 하고 10년이 되면, 노년이면 어찌 하리라는 계획과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주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게 생활하는 것하고 목표 없이 지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막연한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오픈된 상태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픈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란 기대가 있을 때 일할 의욕이 생기고 보람을 느낍니다. 기대가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험하게 전진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3.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2016년 강도사 고시 공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2016년도 37회기 강도사 고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고시원서 교부 및 제출 서류

1. 고시원서 교부 및 제출처
총회 고시부 서기 정중섭 목사(Rev. David J Jeong / j2ksup@naver.com)
14409 Ermita Ave. La Mirada CA 90638 (714-380-0707)
2. 제출서류
고시원서(소정양식/고시부로 신청), 이력서, 노회장 추천서, 사진(여권사진 3매), 신학대학원(M. Div)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신분증(면허증 혹은 여권)사본, 총회인준 신학교 인턴쉽 수료증(본 총회 산하 인준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
3. 제출 마감일
1) 응시원서 : 2016년 12월 31일(토)
2) 논문, 주제, 설교제출 : 2017년 3월 31일(금) / 당일 우체국 소인은 유효
4. 고시료
\$300 (제출 서류와 함께 납부) pay to the order : Peter Hahn

고시(제출 과목)

1. 논 문 :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이단 사이비 대처 방안 {용지 : Letter (160%, 12호) 타자 25-30매}
2. 주 해 : 히브리서 13:1-6 {용지 : Letter (160%, 12호) 타자 7-10매}
3. 설 교 : 베드로전서 1:18-19 {용지 : Letter (160%, 12호) 타자 5-7매}
4. 필기시험 : 조직신학, 교회사, 헌법(정치)
5. 면 접 : 면접은 고시 당일에 실시
6. 고 시 일 : 2017년 4월 17일(월) 오전 10시
1) 서부 : 새영교회 (정중섭 목사 사무) 14409 Ermita Ave, La Mirada CA 90638 (714)380-0707
2) 동부 : 베이사이드장로교회(이중식 목사 사무) 45-62 211Street, Bayside NY 11361 (718)229-0858

연수교육

1. 대상 : 타 교단 신학대학원(M. Div) 졸업한 자로서 본 총회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2. 과목 : 조직신학, 교회사, 헌법(정치)
3. 일시 : 총회 서기나 고시부에 문의
4. 장소 : 총회 산하 인준 신학교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결혼의 평등권에 대한 해석” 동성애운동가들의 생각

동성결혼에 대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을 “동성애운동가”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다!

주류 언론들은 이번에도 또다시 성급하게 “트럼프가 동성결혼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라고 극히 단편적이고도 일차적인 보도만 하며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주류미디어를 지금도 믿으시나요?

결혼의 평등, 동성결혼에 대한 것이라면 오히려 “미국 주류언론의 일차적인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동성애운동가들의 뉴스나 칼럼(HRC, Advocate News)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 11월 13일 CBS 60분 기자회견에서 진행자 Stahl은 트럼프에게 “낙태”에 대해 그의 의견을 여러 방법으로 질문했고, 트럼

그렇다면, CBS 60분을 본 동성애운동가들이 트럼프의 “결혼 평등-동성결혼”에 대한 해석은 어떨까요?

동성애운동단체들(대표적인 HRC & Advocate) 의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견해 1: 이번 CBS 60분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marriage equality에 대한 대답은 단지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는 분명히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다 (It’s irrelevant)”라고 하였으며, 이미 법이 합법화 된 것이니 끝난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자신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지의 개인적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자신의

tionwide-marriage-equality

견해 3: 아래는 Ballotpedia(정치인 개인의 입장들을 알려주는 곳)에서 알려주는 트럼프의 “결혼”에 대한 그의 가치관을 알리는 레코드(전력)입니다.

영문(LGBTQ Rights-동성애 권리):

“On the topic of same-sex marriage, Trump stated in June 2015 that he was “for traditional marriage” but in 2013 stated, “I think I’m evolving, and I think I’m a very fair person, but I have been very for traditional marriage.”

https://ballotpedia.org/2016-presidential-candidates_on_LGBTQ_rights 의역:

판사가 지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연방 대법원이 확실하게 보수적인 경향이 더 많아질 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훨씬 영향력이 있으며 함께 팀워크 할 수 있는 강력한 팀이 생기기엔 훨씬 싸우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3. Pro-Life(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미대법원 판사를 트럼프와 그 정부는 뽑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일 Pro-Life 판사들이 뽑히면 “결혼의 정의” 역시 보수적 입장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큼니다.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도 하기 전부터 동성결혼에 대한 언급을 일차원적 입장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오바마 정부와 진보주의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빌미

“트럼프 말한 마디에 집중하기보다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해주실 것을 기도해야 할 때”

프는 자신은 “생명을 존중한다”라고 확실히 밝히자, 진행자는 곧바로 “marriage equality-결혼의 평등권(동성결혼합법화를 의미)을 지지하나?”고 트럼프에게 물어 봅니다.

영어질문: “Well, I guess the issue for them is marriage equality. Do you support marriage equality?”

트럼프의 대답: “It’s irrelevant, because it was already settled. It’s law. It was settled in the Supreme Court. I mean it’s done. ...these cases have gone to the Supreme Court. They’ve been settled. And-- I th-- I’m-- I’m fine with that.”

의역: “결혼의 평등권은 지금 우리가 나는 낙태에 대한 이야기와는 다른 사안의 이야기다. 결혼의 평등권(동성결혼)은 이미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었고 그들에 의해 이미 결정된 일이다. 흠... 그리고 이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이 없다(I’m fine)”라고 대답했습니다.

개인적 의지와 상관없이) 연방대법원에서 이미 법으로 결정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만 되는 것이다.

견해 2: “트럼프는 이번 CBS 60분 기자회견에서 동성결혼합법화에 대해 극히 “정치적” 언급만 얘기했을 뿐,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으며, 트럼프의 전적을 볼 때(HB2를 지지한 것이나 2013년 그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지), 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보수 기독교인 공화당)을 통해 분명히 동성결혼 합법화된 법안을 뒤집을 것이기에, 트럼프는 절대적으로 동성애자들에게 위협되는 인물이다”라는 게 동성애 운동가/단체들의 의견들입니다.

<http://www.advocate.com/commentary/2016/11/13/trump-lying-about-marriage-equality>

<http://www.hrc.org/2016RepublicanFacts/donald-trump-opposes-na>

동성결혼에 대하여 2015년 6월에 트럼프는 “전통결혼을 지지한다”라고 하였고, 2013년에는 어떻게 이야기 했었다. “내 생각에 나의 생각은 변하는 듯하다. 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결혼만큼은 전통결혼을 지지한다”라고.

다음은 온전히 정치적 입장에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번에 트럼프가 결혼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 발언으로만 했다고 주장하는 동성애운동가들의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전력에 비록 그가 오래전에 동성애단체에 후원금까지 주었지만(회화들의 조사에 의하면), 그의 생각이 여러 조사(동성애자들이 한 조사를 합해서)에 의하면 대통령이 되기 몇 년 전부터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이번에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만 한 것은 지혜로운 발언입니다. 아직도 미연방대법원에 어떤

를 잡을 수 있습니다.

1.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이 선동가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계속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의 당선은 무효화하려는 폭동을 빌미로 계엄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언급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음.

2. 자칫하면 2년 후에 있을 중간선거 및 상/하원투표에서 지금 새롭게 뽑힌 보수 공화당의원들에게 또 다른 승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힘들게 될 수 있음. 즉, 지혜롭게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시민들의 마음을 돌리면서, 안정적인 정책을 이끌어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부터 민심을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기도하며 미국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세우려고 계획한 전략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9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올해는 저와 남편이 LA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직원 월급주고 렌트비 내면 겨우 생활비만 조금 가져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이 몸이 좋지 못해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많이 캄캄했습니다. 앞으로 수술도 해야 합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환과 절교로 환난이 오고 인생의 위기가 왔는데도 감사해야 하는지요?

-로스앤젤레스 이 집사

A: 안과 밖으로 어려움이 와서 힘들어 하는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평탄한 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생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감사와 ‘그렇다 할지라도’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의 감사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과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교회와 직장 등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발전하면 “그러나 감사” 혹은 “그렇다 할지라도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함3:16-18절을 보면 역경 중에서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 ‘그러므로’ 의 감사보다 ‘그렇다 할지라도’ 의 감사가 더 성숙한 신앙

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 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당시 국제정세는 강대국이었던 앗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애굽 역시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신흥국가인 갈대아 즉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바벨론이 유대나라를 치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지않아 말을 타고 창검을 번득이며 유대나라를 침범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유대나라는 바벨론과 짝이 안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더 사납습니다(함1:5-11).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고서 손살같이 움켜쥐기 위해서 내려오듯이 바벨론의 기병들이 곧 유다를 침범하기 위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는 바벨론과 맞붙어 싸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의 쳐들어오는 말발굽소리를 상상하며 그 소리를 듣게 될 때에 마음은 매우 불안하고 두렵고 그의 입술은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이 엄습했고 그리고 온몸 덩어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도 하박국은 이런 임박한 환난과 위기를 예상하면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집사님의 가정에 환난이 찾아왔으나 이러한 역경의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감사를 해보십시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말은 맨뿔로 달릴 때보다 사람이든지 얼마간의 무게를 올려놓아야 더 빨리 달린다고 합니다. 약간의 고통과 고난은 그때는 힘들지만 도약에 필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아파존 강 의 원주민들이 강을 건널 때 무거운 돌은 가슴에 들고 강을 건너는 것을 여행자가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강 중앙에는 물살이 세어서 몸이 가벼우면 떠내려가기에 몸의 균형과 무게를 잡기 위해 돌을 가슴에 안으면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잘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인생의 고난의 돌이 무겁지만 내 인생을 불태워 줄 것이요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GUM[-Global United Mission] Director 청빙공고

GUM은 21세기 현대선교의 동향에 따라 선교의 “전문화와 다양화” 또한 개교회와 교파, 선교단체를 초월한 “초교파적 선교 협력”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협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선교단체입니다. GUM의 비전인 예수님의 자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선교 공동체로서 창의적인 선교전략을 가지고 전방선교에 나서며, 서로 협력하여, 현지 지도자 양성을 이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께 섬기실 Director를 청빙합니다.

자격조건

1. 영혼구원과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이 투철하신 분
2. 선교사역에 합당한 인격, 전문성, 훈련과정, 가족사항, 재정문제 등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3. 선교 경력 8년 이상인 분
4. 한국어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 (그 외 다른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분 우대)

제출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이메일 주소 포함)
2. 최종학력 증명서
3. 목사안수 증명서 혹은 선교단체 선교사 허입 증명서
4. 자기소개서 및 신앙간증문
5. 개인 선교비전
6. 추천서 2통 (교역자, 선교사 각각 1통)

접수마감: 12월 15일까지

우편(18 Essex rd, Paramus, NJ 07652)이나 e-mail (sanhonam@hotmail.com)로 신청바랍니다.

문의: 남상호 목사 (sanhonam@hotmail.com)

Global United Mission

1.5 Generation and Young Families position

1.5세 · 젊은부부 목회자 청빙

Pilgrim Church is seeking qualified candidates for its full-time Pastor of 1.5 Generation [1.5G] and Young Families [YF] position. The 1.5G and YF ministry at Pilgrim Church features about 100 families. Candidates must be a graduate of an accredited seminary institution with a post-baccalaureate degree in pastoral ministry, ordained minister in a reformed denomination (or in the process of becoming ordained), three-to-ten years of experience in family/adult ministry, heart for Korean-American 1.5G and YF ministry and English-language fluency.

필그림교회서 약 100가정 가까이 되는 한인 1.5세와 젊은부부를 위한 사역을 하실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자격은 정식인가된 신학교 및 졸업후 목회관련 소정교육을 마치고 개혁신교단에서 안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고, 약 3년에서 10년정도의 성인 사역경험이 있고, 한인 1.5세와 젊은부부가정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분으로서 영어 구사능력이 유창해야됨.

Inquire or send the following documents to hr@pilgrimchurch.org

- CV or Resume
- Personal statement of faith [personal testimony]
- Two sample sermons [audio w/ video preferred]
- Two recommendation letters

Pilgrim Church

18 Essex Road Paramus, NJ 07652
Search/HR Committee
hr@pilgrimchurch.org

종교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하라우티(HARAUTI)



인도는 히말라야, 북부 강변 평야 지역, 데칸 고원, 동서부 가즈 산맥 등 인도는 네 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다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후조건 또한 계절과 지역에 따라 열대기후에서 온난기후까지 매우 다양하다.

55만8백 명의 하라우티인들은 주로 라자스탄의 코타 지방과 마드라 프라데시주에 살고 있다. 그들의 언어는 인도-아리아인 어군에 속한다. 하라우티인들의 구체적인 생활양식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삶의 모습
인도 인구의 73%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다. 많은

사람들은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수확하는 농부들이다. 그들의 농토는 아주 작고 조각진 땅이 많다. 가축 특히 뿔이 있는 가축, 소, 말, 노새 등을 키우는 것은 그들 농업경제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힌두교의 영향으로 이러한 동물들은 고기로 먹기보다는 대부분 단지 짐을 나르는 짐승들일 뿐이다.

인도 문화는 기본적으로 힌두교 중심적이다. 많은 힌두교 기관들은,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포함해 세속적인 인도 사회에도 폭넓은 영향력을 지닌다. "카스트(caste)"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종족, 씨족, 동족을 의미한다. 인도 사회는 일반적으로 동족결혼 즉, 같은 카스트 안에서만 결혼을 하는 위계적인 카스트로 나뉘어져 있다. 카스트는 직업이나 친족관계와 혈통에 의해 정의될 수 있으나, 약간의 예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는 사

회 조직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족 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다. 하라우티인들을 정확하게 카스트 제도 안에서 이해하기에는 그들에 대해 알려진 바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적절히 설명할 수는 없다.

많은 하라우티인들이 라자스탄 주에 살고 있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라즈푸트"(rajput, 인도 귀족)가 존재한다. 군주와 토후 국왕 시대에, 라즈푸트 귀족들이 수세기 동안 라자스탄의 정세를 지배했다. 라자스탄은 또한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지장카스트(불가촉천민, scheduled) 부족인 브릴족들의 고향이기도 한다.

신앙
하라우티인들의 다수(84.5%)는 힌두교도들이다. 이슬람교도들은 10.5%이며, 자이나교도(힌두교의

한 분파)들이 3%이다. 기독교인들은 1% 미만이다.

하라우티 힌두교도들은 기본적인 힌두교의 관습과 전통을 따른다. "힌두교"라는 말은 서기 1200년경쯤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힌두교도들이 믿는 바를 분명하게 확정짓기란 어렵다. 힌두교에는 창시자도, 선지자도, 교리 체계도 없다. 힌두교는 종교체계라기보다는 하나의 생활양식이며, 종교 이상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 갖고 있는 신교와는 달리, 힌두교는 고대의 고정된 어떤 신앙의 흐름이 아니다. 오히려, 수백년 동안의 주요한 변화를 지니고 있는 관습과 실행, 신앙의 혼합체이다.

힌두교도들의 주류들은 최상의 신적 존재는 믿는다. 어떤 힌두교도들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야채만을 먹는 반면, 다른 힌두교도들은 신전에서 제사 드려진 고기를 가까이 먹는다. 어떤 힌두교도

들에게는 그들의 종교가 매우 개인적인 것이고, 또 다른 힌두교도들에게는 개인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것이 된다.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이 "브라만"(Brahman, 창조자), "시바"(Shiva, 파괴자), "비쉬누"(Vishnu, 보존자), 여신 "샤크트리"(Shakti)를 숭배하는 반면, 그들은 또한 덜 중요한 신들의 만신전, 그들의 화신, 배우자, 소산을 숭배한다. 윤회에 대한 믿음은 힌두교에서 한결같이 믿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신약성경이 하라우티인들의 언어로 돼있으며, 그들 가운데 소수의 믿는 자들도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생활에 격려가 되고 심화시킬 자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하라우티인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갈 개척 선교단체들의 사역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학교가 부모에 자녀 성적체성 알려' 법안 발의

학교가 학생의 성(性)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 법이 미국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21일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상원의원인 코니 버튼(공화)은 나흘 전 성 소수자 학생을 금지로 몰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텍사스 주 상원은 내년 1월 10일 열리는 2017년 회기에서 이 법안을 심의한다.



CBS 방송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서 소수자를 향한 증오행위와 폭력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버튼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점에 주목했다. 버튼 의원은 공화당 내 보수 강경 세력인 티파티의 지원으로 2014년 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보도를 보면, 버튼 의원은 지역구인 텍사스 주 포트워스 교육청의 성적체성 학생 새 지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포트워스 교육청은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학생 성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 지침에서 명시했다.

학생이 부모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리지 않고도 그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버튼 의원은 즉 이 지침이 학부모의 자녀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버튼 의원은 지난 5월 한 지역 일간지에 보낸 투고에서 "우리의 학교는 배움의 장(場)이지 가족의 사랑과 지원을 위한 대체물이 아니다"면서 교육청의 지침을 억제할 법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발의한 법에서 학생의 신체·정신·감성 상태를 담은 교육청의 모든 기록물을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 관계자가 관련 기록물을 숨기거나 학생만 알 수 있도록 하면 처벌을 받는다. 결국, 학교가 학

생 의사에 상관없이 그들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셈이다.

성 소수자 옹호 단체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스티븐 루드먼 '텍사스 평등' 의장은 "아이들이 동성애자, 성전환자라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때까지, 이들이 같은 이유로 부모에게 맞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버튼 의원이 발의한 법은 학생과 교육자 간의 보호받는 의사 소통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 민권운동도' 이 법이 통과되면, 보수적인 주에 사는 성 소수자 젊은이들은 부모가 성 정체성을 용인하지 않는다면 학대받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비판이 빚발치자 버튼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오해했다면서 동성애 학생을 교정 치료(전환치료)로 내모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작년 OECD회원국 테러사망 650% 폭증...주범은 IS

지난해 테러로 숨진 희생자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650%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보고하람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진압된 반면, 해외에서는 더 많은 공격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과 영국 인디펜던트 등은 국제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IEP)가 16일 발표한 '세계 테러리즘 지표(GTI)'를 인용해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34개 국가에서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보다 650%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총 731명이 숨져 9·11로 2996명이 숨진 2001년을 제외하면 피해가 가장 큰 해였다.

특히 23개국에서 지난해는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됐다. 또 21개국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테러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테러가 빈번한 터키와,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로 타격을 입은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이 숨졌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테러 사망자는 4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테러로 숨진 인원은 2만9366명으로 전년보다 10% 줄어들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시리아에서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사망자가 나왔다.

지표에 따르면 전 세계에 274개의 테러리스트 집단이 있지만 IS, 보고하람, 알카에다와 탈레반이 테러로 인한 사망의 75%를 유발했다. 가장 치명적인 조직은 IS였다. 252개 도시를 공격해 6141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표는 테러가 세계 경제에 끼친 손실을 896억달러로 추산했다. 경제적 타격이 제일 컸던 이라크의 경우 피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에 달했다.

BBC, 내년부터 한국어로 '대북 방송'

영국 공영방송인 BBC가 내년부터 한국어로 '대북 방송'을 시작한다. BBC는 16일 'BBC 월드 서비스(World Service)'에 내년 봄부터 한국어를 포함해 11개 언어로 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어 방송은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전역에서 접할 수 있다. 단파·중파 라디오 방송은 물론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 콘텐츠도 제공될 예정이다.

프란 언스워스 BBC 월드서비스 국장은 "전쟁과 혁명, 국제적인 변혁 과정에서 전 세계인들은 월드서비스를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뉴스를 접했다"며 "북한의 개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냉전 시대에 BBC의 라디오 시스템이 소련의 동구권 붕괴에 기여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어와 함께 인도의 구자라티어와 펀자브어, 에티오피아의 아판 오모모어와 암하라어, 나이지리아에서 쓰이는 이그보어와 유부바어 등이 추가된다. 194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인 이번 확장으로 BBC는 영어를 포함해 총 40개 언어로 방송을 내보내게 된다.

BBC는 월드 서비스편성 100주년을 맞는 2022년까지 현재 시청·청취자의 2배를 웃도는 전 세계 5억 인구에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영국 정부로부터 2억8900만 파운드의 예산을 지원받은 상태다.



별어지기도 했다.

FPI 등은 이날 자카르타 시내에서 두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고 아후크 주지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내년 2월 지방선거에서 아후크 주지사와 맞붙는 상대 후보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개혁 정치인으로 꼽히는 아후크 주지사는 2014년 중국계로는 처음으로 자카르타 주지사에 오른 이후 과감한 개혁으로 인기를 끌었다.

'트럼프 시대에도 한미관계 발전해야'...맨해튼에 광고

제45대 미국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하는 광고가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등장했다.

기업광고전문업체인 브리지엔터프라이스의 대표이자 컬럼니스트인 한태경 씨는 18일 뉴욕 맨해튼의 47번가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네거리의 공중전광판에 트럼프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의 광고를 올렸다. 타임스퀘어에 가까운 이 광고판에는 4주 전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광고가 실려 눈길을 끌었다.

새로 올라온 광고는 트럼프의 사진과 함께 영어 및 한글로 된 당부의 글이 실렸다.

한 씨는 먼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힌 뒤 미국과 한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표현도 담았다.

한 씨는 "한-미관계는 경제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인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혈맹관계를 일깨우기 위해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취임 첫날 TPP 폐기' 트럼프의 100일 구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분명했다. 예상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트럼프호 항해를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미 CNN방송은 22일 트럼프가 취임 100일 내 우선 처리돼야 하는 과제 6가지를 2분38초짜리 영상에 담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표명한 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다. 트럼프는 "TPP가 우리나라에 잠재적 재앙"이라며 "취임 첫날 TPP 탈퇴를 선언하고 일자리와 산업을 되찾아줄 양자 무역협상을 대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TPP 탈퇴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관련국들의 우려가 예상된다.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아베내각이 방한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छो리는 TPP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트럼프의 뉴욕 자택을 찾아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탈퇴를 막으려 애썼다. 자신의 핵심 성장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셈이라 대내외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무역 외에도 에너지산업 진흥과 이민문제, 규제완화, 안보, 공적기강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자 프로그램을 약화하는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테러를 방지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워싱턴 오물 빼기(Drain the swamp)' 일환으로 행정부를 떠난 공직자의 로비스트 활동을 5년간 제한하겠다고 했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는 이번 영상에선 빠졌다.

트럼프의 '희망 리스트'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전날 예산부족과 금리인상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은 감세와 인프라 투자, 군비 증강을 골자로 하고 있어 예산과 부채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초저금리 기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계 기독교도 자카르타 주지사, '신성모독' 논란 끝 법정행

인도네시아 이슬람 세력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중국계 기독교도 주지사의 신성모독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은 16일 바수키 차야야 푸르나마(일명 아후크) 자카르타 주지사를 신성모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리 도노 인도네시아 경찰청 형사수사국장은 "오랜 논의 끝에 공개재판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후크 주지사는 지난 9월 27일 자카르타 인근 플라우스리부 리젠시(군·郡)에서 대중 연설을 하면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언급했다가 신성모독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그는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코란 5장 51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았다면 내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슬람 강경파는 아후크 주지사가 코란 자체를 부정했다고 주장했고, 그가 "코란 5장 51절에 속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급격히 유포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올해 3월 59%에 달했던 아후크 주지사의 지지율은 현재 25%까지 떨어졌다.

지난 4일 이슬람수호전선(FPI) 등 강경 이슬람 단체 주도로 자카르타 시내에서 열린 집회에는 10만 명이 넘는 무슬림이 모여 아후크 주지사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고, 이 중 일부는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해 시위대 한 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치는 사태가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서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15. 안정수

안정수는 1878년 충남 보령군에서 태어났다. 한학을 공부한 그는 1897년 한성 영어학교에 입학하여 영어와 서양문화를 배웠다. 본 학교에서 안정수는 현순과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고 했던 허버트 선교사를 통해 민족 의식에 눈을 떴다. 1899년 본 학교를 졸업한 그는 제물포 해관에 채용되었다. 그의 형제 중 안영수는 대법원 판사였고, 안종수는 전라도 도지사를 역임했는데 제주도 9년간 유배를 당했다고 한다.

데릴러가 제물포에 하와이 이민대행 업체인 동서개발회사를 세울 때 존스 목사의 소개로 안정수는 본 회사 통역관으로 임사했다. 알렌 공사로부터 하와이 이민 지원 요청을 받은 존스 목사는 당시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국인에게 하와이를 짓고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비유하면서 이민을 설득하



상항감리교회

이들 한인이주자들은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감리사 피어슨 목사로 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안정수는 1903년 11월 첫 주일 제물포 교회 동료 권사였던 우병길(우병구)과 함께 호놀룰루 시내에서 한인감리교선교회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시작이다. 또한 1903년 8월 그는 흥송하 전도사와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고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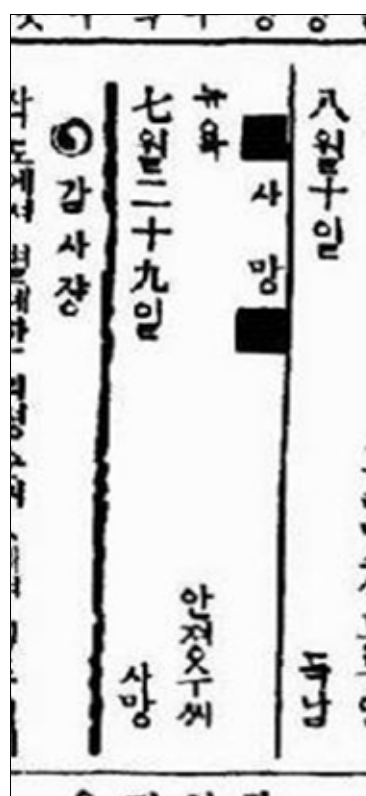
뉴욕한인교회

교부 산하의 H.B. 존스 목사가 내리교회의 존스 선교사와 함께 1905년 7월에 샌프란시스코의 '페이저 스트리트 521번지'에 13개의 침대와 간단한 가구를 설비한 한인 미션홈을 마련하였고, 두 개의 거실에 예배실을 만들었는데 안정수는 박용만과 더불어 한인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 해에 내한길에 샌프란시스코를 들른 재한감리교 아더 노블 선교사를 모시고 위의 예배실에서 한인들이 모여 성대한 모임을 가졌을 때 안정수가 조선에 관하여 대화를 했을 것이다. 190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듬해 '문학 철학과학 대학'을 졸업하고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기독교 과학자로 알려진 안정수는 콜럼버스에서 5천원 정도의 아시아 물품으로 3년간 미술상점을 열었는데 번창했다.

1918년 1월 사업관계로 코리아 선편으로 귀국하여 3.1만세운동을 목격하던 그는 미국 한인사회에 진상을 알리기 위하여 도미한다. 그 해 4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서의 연설을 시작으로 애국지사 이기호와 내한 선교사 허버트 박사를 초청하여 조국의 실상을 알리고 3.1만세운동으로 어려운 동포를 돕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안정수는 1919년 6월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에서 개최된 미국 북감리교 1백주년기념대회에 임정구 등 남자 대표 12명과 황혜수 등 6명의 여자대표, 우영택 등 4명의



신한민보 1940년 8월 15일

1921년 뉴욕한인교회가 창립될 때 안정수도 함께 했다. 이듬해 그는 본 교회 5인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모금한 2,000불과 18,000불의 감리교 재단의 협조를 얻어 웨스트 스트 21가 459번지의 지하가 있는 4층 건물을 구입하고 인근에는 콜럼비아 대학 등 대학에서의 학예의 편리가 있어 배달민족의 도덕발전과 학술 연구에 충성과 희생을 다하지는 목적을 세웠다. 본 건물에 약 25명이 기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한인 단체들의 각종 활동도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이름 Korean Church and Institute를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다년간 본 교회 이사를 역임하면서 교회를 섬겼다.

또한 안정수는 애국 운동에도 관여했다. 1919년 대한인 국민회 뉴욕지방회 창립 1주년 기념회에서 "국민자격과 국민회 드림"이라는 연설을 통해 조국 독립을 고취하였으며 1924년 흥송수 등과 함께 뉴욕 한인교민단 설립하고 동포 규합과 친목 증진 이외에 조국 독립을 목적했다. 그의 기부는 조선 적십자사, 구미위원회, 간도 동포 참상, 열강회, 상해 임시정부, 정신학교, 보성전문학교, 흥사단, 안의태의 애국가발행, 뉴욕 중국 항일전쟁, 내지한재 그리고 광복군으로 이어졌다.

안정수가 1940년 7월 29일 향년 62세로 뉴욕 주립병원에서 급성맹장염으로 사망할 때까지 교회사람과 민족사랑은 그치지 않았다. 그 달 30일 뉴욕한인교회에서 있었던 그의 장례식에 미국 감리교회 뉴웰 박사가 영결사 순서를 맡아 기독교적 인격을 갖춘 교회의 일꾼이었던 안정수를 애도했다.

damien.sohn@gmail.com

제물포 내리교회서 신앙생활, 1902년 1차 하와이 이민단 인솔 1904년 가주 이주, 미북감리교 지방 전도사로 임명 1921년 뉴욕한인교회 설립, 교회당 구입 앞장, 독립운동 참여

제물포와 제물포 내리교회

제물포 해관에 채용된 안정수는 이곳 내리교회에 출석했다. 2년 전 그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허버트 존스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교회다. 그는 그 해 12월부터 내리교회 부속 매일학교 야간 영어교사로 봉사한다. 존스 목사가 보고한 1899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능력 있고 성실하고 헌신적인 안정수에 의해 매일학교가 정상 궤도에 올랐고 한문과 인문 그리고 초급 영어를 가르쳐 학교는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에 처했다.' 그는 우병길 등과 함께 매일학교를 근대식 학교인 '대한인 미이미감리교회 사립영화학당'으로 개조했다.

안정수는 1901년 한국 최초로 창립된 내리교회 영렛 청년회 통신국장을 맡아 그 해 9월 태극등 2개를 달고 태극기를 좌우에 게양한 가운데 고종황제 탄신 50주년 기념축행사를 주관하였다. 강원서, 함베드로, 존스 목사에 이어 "대항제 성덕이 외외하여 일월같이 비치시나 혹은 같은 산하가 총명을 응페하니 먼저 신민의 본분을 국사함이 가한 줄이라"는 연설 후 그는 만세와 애국가를 불러 민족의식을 높였다. 그 해 10월에 회집한 미국 북감리교 서한국지방회 제1차 회의에서 서기로 선임되었고 그 후 내리교회 권사로 임명되었다. 1902년 11월 미국인 데이빗 W.



호놀룰루 감리교회

여 내리교회 남녀 교인 약 50명이 하와이 이민을 지원하였다.

하와이

1902년 12월 22일 눈이 내리는 날 안정수는 장경화와 정인수 등과 함께 인솔자가 되어 102명의 1차 하와이 이민단을 이끌고 제물포를 떠난다. 안정수는 존스 선교사가 파송한 선교팀이었다. 그는 내리교회 권사인 김이제와 함께 미국 상선 캘리포니아에서 매일 예배를 인도했다. 이듬해 1월 호놀룰루에 도착한

죽은동을 전개했다.

캘리포니아

1904년 말 안정수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선교를 위하여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였다. 다음 해 그는 박용만과 함께 미국 북감리교 지방 전도사로 임명받아

샌프란시스코와 인근 오클랜드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는 17명의 한인 동포를 찾아가 전도하고 돌보는 교회 사역을 담당하였다. 네브라스카 주 링컨으로 떠나던 1905년까지 사역했다면 그의 사역 기간은 1년 미만일 것이다. 1905년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17명 이외에 문경호가 사역하던 바카빌의 23명과 새크라멘토의 15명을 합쳐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총 55명의 한인이 있었는데 이 중 18명이 등록교인이었고, 22명이 세례교인이었으며, 15명이 학습교인이었다. 미국 북감리교 대령양 일본인 선

결성된 공립협회 창립에 애국심이 강했던 안정수가 직접 참여하였다면 그 해 11월 공립협회 회관 마련과 공립신보 창간에도 협력했을 것이다.

안정수는 박용만과 함께 인종 차별이 심한 캘리포니아보다 인종 차별이 심하지 않은 네브라스카로 이주하였다. 1906년 그는 박용만과 이어 네브라스카 헤이스팅스대학에서 공부했다. 이듬해 안정수는 하와이에 동행했던 우병길(우병구)이 거주하고 있던 뉴욕으로 이주했다. 그 해 10월 그는 뉴욕 거주 한인들을 중심으로 공제회를 조직하여 뉴욕 일본영사관이 추진하던 한인 연구소사를 강력 저지하였다. 1908년 5월 안정수는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 그 해 7월 공립협회 대표가 되어 독립운동가 이승만을 영접하였다.

오하이오

1908년 12월 안정수(John Soo Ahn)는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이주하여 1912년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입학하여 1년을 공부하고 1915년에 복학하여



안정수

야동대표, 국민회 대표 정한경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 해 뉴욕에서 향년 51세로 소천한 신앙의 아버지 존스 선교사의 장례식에 안정수가 참여했을 것이다.

뉴욕한인교회

안정수는 뉴욕으로 이주하였다. 오하이오 주에서 번 자금으로 중국향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약 30만불을 소유한 거부가 되었으며, 이후 정인수와 신세현과 함께 설립한 한민상회도 번창하여 한인사업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2017 YWAM Senior mini DTS

인생의 전환점, 지금은...



2 Corinthians 6: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For he says, "In the time of my favor I heard you, and in the day of salvation I helped you." I tell you,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교육일정

2017년 1월 9일~2017년 2월 3일(4주)

도미니카 베이스 도착일자는 1월 9일이며 베이스 출발일자는 2월 3일 부터입니다.

참가신청

아래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MAIL:seniordtsdr@gmail.com

지원자격

55세 이상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으로써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기독교인 중에서 최근 마약, 알코올, 담배 및 기타 중독이 없으신 분

기타문의

미국 +1 808-345-0807(공 회 선교사), 070-4606-6628 (인터넛폰)
+1 808-333-2029(지미 채 선교사)
+1 301-655-2209(전 구 선교사)
도미니카 공화국 +1 809-914-1930(김현철 선교사)



Km 18 Carretera Yamasa Santo Domingo Norte, Republic of Dominicana

성경도 신앙 (18) 청교도들의 예배 (9)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5)청교도에 있어서 예배자의 자세

가)예배자의 자세로서의 제 3계명

예배하는 자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예배자의 자세가 잘못되면 개인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비록 개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이는 제사를 드리던 개인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히11:4). 그래서 하나님은 제 3계명을 통해 자신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위한 가르침을 주셨다.

진정한 예배는 형식적이 아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해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고, 합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예배해야 한다. 인간의 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미신적으로 예배를 오용할 경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계명은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쉽게 범하기 쉬운 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행위이므로 불신자가 주의 성호를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것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제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불경건하거나 경솔하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나)칼빈의 제 3계명을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요구

“첫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으로 생각하며 입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내고, 거룩하고 숭고하신 이름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야심이나 탐욕을 위해서, 또는 흥심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존귀한 신비들을 경솔하게 또는

패역하게 남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존엄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비를 항상 귀하게 여기며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훼방하거나 악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의, 인애하심에 대해 찬양해야 한다”(강요2장 8, 22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남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이름을 강간술, 저주, 불법적인 축기 행위, 기타의 사악한 주문암송 등 미신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고 하였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며 기록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자신과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라고 하였다(대요리문답서 112문).

청교도들은 제 3계명을 그리스도인의 언행 생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생활할 것을 주장하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말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교훈한다고 보았다.

6)칼빈이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 제네바에서 사용했던 예

에서 말하는 예배 요소에 대한 지침

가)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배의 특별한 요소이다(빌 4:6).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다(시65:2).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리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이다. 만일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요14:13,14; 벰전2:5; 롬 8:26; 요일5:14; 시47:7; 전 5:1,2; 히12:28; 창18:27; 약 1:6,7, 5:16; 막11:24; 마 6:12,14,15; 골4:2; 엡6:18; 고전14:14).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말을 넘어선 사람

인간의식에도 수준이 있다. 그 의식 수준에 따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다 다르다. 그래서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화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 수준은 자기 인생의 사연이 얼마나 풀렸나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 아닐까

어떤 아버지는 애 도시락을 걸었다고 아내를 다투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어릴 때 집이 너무 어려워 도시락을 못 싸갔던 것이 한이 되어...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놈의 '한' 때문에 도시락 살지 마'라고 애들을 잡는지... 그렇다. 사연이란 그 사람의 풀리지 않은 이야기이다. 사람은 풀리지 않은 이야기를 '한'으로 꽂꽂고 살아서 누군가가 그 한을 건드리면 상처 난 부위를 또 건드리는 것 같이 아파하고 비명을 지르고 폭언을 하고...

그런데 사람은 그 풀리지 않은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고 알아만 줘도 그 상처가 다 풀려 버릴 수 있는데도 그걸 풀어줄 사람 하나를 찾지 못해 평생을 가슴을 쥐고 아파하는 우리가 아닐까. 그래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리라.

나는 강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자신을 알아가게 된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그가 주님임을 알아본 순간 없던 고백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을 알아가게 되리라. 그래서 바로 자기 속에 신성이 있음을 깨닫는 자가 진짜 신령스런 사람이 아닐까. 언제까지 우리는 받기만 하고 배우기만 할 것인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가슴이 되어 내 안에 있는 그 신성의 빛을 주위에 좀 비추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얼마나 우리는 말에 치이고 다치고 넘어져서 주저앉아 상처를 자처하고 있는가? 들은 말이 다 사실이나 진리까 아닌데 말이다. 어떤 말들은 그저 쓰잘 때 없는 말이요 표현일 뿐이다. 그런 말에 우리는 너무도 속고 살았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말 한마디를 평생 가슴에 품고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온 세월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라' 같은 말씀을 그렇게도 반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말에 속고 또 속고 계속 속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이리라. 나는 되는데 없어 라는 말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말에...그렇다 말에 흠뻑 빠져 이리 저리 끌려 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어떤 말에도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말을 넘어선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일상에서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는 것이리라. 그렇게 의식의 수준이 조금씩 상승되어 가면 그 생각 안에 수고하고 무겁게 짐 진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은 생각할 때만 집중해서 하고 다른 시간들은 살아있는 책인 자연과 소통하며 과거도 미래도 연연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지금 여기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지 않을까.

기도를 할 때면 만에는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이 미간을 찌푸리며 기도를 한다. 그것이 어느덧 큰 자국이 되어 평생 가는 표정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 하루도 못가는 화장에는 온갖 공을 다 들이고 시간과 돈도 엄청 들이는데 평생 가는 표정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 표정을 바꾸려면 얼마나 많이 웃어야 할까! 내 표정은, 내 얼굴은 내가 못 보니 내 것이 아니라 지금 보는 사람의 것이란다. 내 표정 하나로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으니 그게 말을 넘어선 사람의 진정한 말이리라. 그래서 하늘을 보고 웃고 나무를 보고 웃고 고개를 나를 들여다보고 웃고 내 맘의 날씨를 보고도 웃고 두려움을 보고도 웃고 실수를 보고도 웃고 웃다가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을 향해서도 웃으며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인생 성공이 무엇이 있겠는가?

주님은 언제나 물으셨다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렇다 꿈이 없는 자도 아니 꿈만 꾸고 있는 자도 아니라 살면서 정말 무언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자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자 이리라. 스승은 '스스로 승리하자' 란다. 그렇게 스스로 승리하는 힘,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힘이리라. 그 힘으로 삶이 주는 선물들을 더 많이 누리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늘의 영광난 복이 오늘의 실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말을 넘어선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리라.

changsamo1020@gmail.com

3계명은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자세와 그리스도인의 언행생활 규정으로 이해 기도는 합법적이고 생존자(미래생존자)위해, 망자(사망에 이르는 범죄자)위한 기도는 금지

이 없이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죄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신비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할 때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행적을 논할 때에도 그에게 영예가 되도록 해야 한다”(강요2장 8, 22항).

특히 단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손상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요2장 8, 24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는 칼빈의 가르침대로, 제 3계명은 “저주, 위증이나 필요 없는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악용하는 것을 금한 다(제99문)고 하였다. 독일의 칼빈주의자들은 제 3계명을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다)청교도의 제 3계명 이해
청교도들은 제 3계명을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였다. 그들은 제 3계명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속성과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기업, 그의 사역과 그 외에 하나님

배 순서
가)예배의 부름 나)죄의 고백과 용서를 위한 기도 다)시편찬송 라)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마) 성경읽기(신약과 구약에서 한 장씩) 바)설교 및 성례 사)헌금 아)긴 기도과 주기도 또는 사도신경 및 십계명 암송 자)시편 찬송 차)축복선언.

7)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 모범 지침서의 예배 순서
가)예배 부름 나)은혜와 조명을 위한 기도 다)성경읽기(신약과 구약에서 한 장씩) 라)시편찬송 마) 죄 회개와 중보기도 바) 설교 사)감사와 간구의 기도 아) 긴 기도과 주기도 암송 자) 시편 찬송 차)축복 선언

이 예배 순서에서 특별한 것은 예배 기도가 둘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 현대 예배에 익숙한 목회기도는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했다. 또한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와 회개와, 사죄를 위한 기도 및 중보기도를 나누어 대표기도를 두 번 했다. 그러나 지금 스코틀랜드장로교회에서는 대부분 목사가 그 모든 기도를 아울러 한 번의 목회기도로 하고 있다.

8)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기도는 합법적인 것들과(요일 5:14), 생존하는 사람들과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딤후2:1,2; 요17:20; 삼하 7:29; 룻4:12), 죽은 자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된다(요일5:16).

나)경건한 경외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행15:21; 계1:3).
건전한 설교와(딤후4:2), 이해와 신앙과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복중하는 자세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약1:22; 행10:33; 마13:19; 히4:2; 사66:2),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찬양하는 것(골3:16; 엡5:19; 약5:13),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르게 거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통상적인 예배 요소들이다(마 28:19, 고전11:23-29; 행2:42).

이 외에 종교적인 맹세와(신 6:13; 느10:29) 서원(사19:21; 전5:4,5), 신성한 금식(골2:12); 예4:16; 마9:15; 고전7:5), 그리고 특별한 경우의 감사들은(시 107편; 예7:5) 적당한 시기에 몇 차례 거룩하고도 종교적인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히 12:28).

younsuklee@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오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오전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410)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벨앨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성령):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lch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15 (한), 오전 11:15 (영) 주일학교: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오전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오전예배: 오후 7:30 수요일오후예배: 오후 8: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oseattle.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8,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알라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907)920-9049, 사해: (501)94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wjs.org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해: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7)542-0288, Fax: (717)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노루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오전예배: 오후 7:00 금요일오전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오전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오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ri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o.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최일도 고재동 목사, 심각한 신학적 문제 세이언 2차 컨퍼런스, 조사연구 배경 및 내용 발표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회장 김순관 목사, 이하 세이언) 주최 제 2차 컨퍼런스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다.

세이언은 16일 오전 10시에 베들레헴교회(담임 서종천 목사)에서 폐회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연구한 보고서(최일도 목사, 고재동 목사)를 발표했다.

조사연구 발표자로 나온 한선희 목사(세이언 사무국장)는 2015년 2월 세이언 제 4차 총회에서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의 이단성 조사청원의 건”과 2011년경부터 시온인터내셔널교회 고재동 목사의 신학적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료 등을 수집하는 과정 중 2015년 9월 세이언 제 1차 컨퍼런스에서 “고재동 목사의 이단성 조사청원 건”의 현안안이 올라왔으며, 두 목사에 대한 이단성을 조사하게 된 연구배경을 밝혔다.



세이언 2차 컨퍼런스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또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분별하고 경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컨퍼런스를 마치고 회장 김순관 목사는 “앞으로 우리만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도 연계해서 오늘 발표된 두 사람의 문제점을 알려, 잘못된 신학사상에 몰든 성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거론된 최일도 목사는 △가톨릭 구원론을 따르는 비성경적인 구원론 △이단으로 규정된 위트니스리의 지방교회사상에 입각한 관상기도의 문제점 △트릭 오 디버나 △향심기도 △예수 호칭기도 및 호칭에 맞춰 드리는 예수기도 등이다.

최일도 목사는 예수호칭기도를 통해 좀 더 성숙한 관상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최일도 목사가 이런 심각한 이단성을 버리지 않는 한 교류금지 및 참여금지를 해야 할 것이라 결론을 지었다.

두 번째 시온인터내셔널교회 고재동 목사의 연구보고는 △신사도 운동 성향의 이단성 △하나님의 자연설리도 조종하는 사이비성 △직통 계시자 △시한부종말론 사상 △김기동론의 마귀론 사상 △이윤호의 가계저주론 사상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교회론 △비성경적 전사론(천사 동원론) 등을 예로 들었으며 고 목사를 신사도운동과 신비주의를 혼합한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했다.

(박준호 기자)

기도/칼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교회)

성경 이사야서의 주제는 구원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도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사야 66장 24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지옥을 말한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못이다. 아이러니하다. 왜, 구원의 책에서 지옥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을까? 진정한 구원은 지옥에서 구원, 천국임을 재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마지막 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 전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두 개가 있다. 그것은 심판과 구원이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주로 심판에 대하여 후반은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며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서 구원받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이다. 심령 천국, 교회천국을 이루며 열방천국의 꿈을 꾸어야 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크게 한 번 외쳐보자. 지옥에서 천국으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딤후4:18).

이메일: bible66@gmail.com

필라교협 회장에 김영천 목사 추대

성탄찬양제 11일, 복음화대회 6일로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영천 목사) 제 37회가지 지난 18일 한미음교회에서 첫 임실행위위원회 열고 임원단 및 연례행사 스케줄을 발표했다.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영천 목사(한마음교회) △부회장 박도성 사관(구세군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2부회장 이성득 장로(기쁨의교회) △총무 이경중 목사(살롬교회) △서기 김병일 목사(포도원교회) △부서기 송석현 목사(열린문교회) △회계 정준영 장로(안디옥교회) △부회계 이병택 장로(한마음교회).

이번 회장단은 젊은 층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활발한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케 했다.

또 각 정, 부 분과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실행위원은 12월 15일까지 임원회에서 조정 발표하기로 했다.

△전도: 호성기, 박태문 △신학: 김풍운, 조진모 △대내: 김창만, 강학구 △대외: 황준석, 박성일 △조국통일: 고택원, 박정호 △정보통신: 이대우, 정희관 △홍보: 강승호, 장덕상 △음악: 차병훈, 주은재 △청소: 최해근, 김성준 △체육: 정인원, 이응도 △평신도: 박등배, 김치수(이상 목사) △재정: 정준영,

이병택(이상 장로).

37회기 사업, 행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귀니드 양로원에 11월 22일 △성탄축하 연합찬양예배 12월 11일(주) 오후 6시 벨렝장로교회(안재도 목사) △신년감사 하례예배 2017년 1월 8일(주) 오후 5시 영생장로교회(백운영 목사) △부활절새벽 연합예배 2017년 4월 16일(주) 오전 6시 (지역안배) △필라복음화 준비기도회 2017년 6월 중 3회 △필라복음화대회 6월 22(목)-25(일) △광복절기념예배 8월 13(일) △청소년 복음화대회 10월 20(일)(금).

특기할 것은 2017년도 필라 복음화대회는 6월로 앞당겨졌고, 강사는 양명환 목사로 양명환 목사는 강원도 황성교회 담임이며 한국기독교부흥협회 대표회장, 감리교전국부흥사협 단장이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박도성 사관 인도로 이경중 목사 기도, 김병일 목사 성경봉독 후 김영천 목사가 사도행전 10장 38-4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한 후 안문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주최 이민사회 특강 및 친교모임에서 고남철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미주미성 남가주교역자회 이민사회 특강 및 친교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회장 안중기 목사)는 지난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치노힐스에 있는 미주세한교회(담임 주신 목사)에서 이민사회 특강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부회장 김희창 목사의 인도로 드린 예배는 고남철 목사(그레이트스칼교회)가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그의 수십 년간 이민목회를 통해 경험한 주옥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날 치노밸리 통합교육구

제임스나교육위원장이 특별강사로 초청돼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미주류 교육사회에 뛰어넘어 겪은 장애물 극복에 대한 신앙 간증을 했다.

이어서 남가주 3개 지방회에 소속된 교역자들이 고남철 목사 은퇴 기념으로 제공하는 점심식사로 교제를 하며 이민의 삶과 사역에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미주미성 남가주교역자회)



필라 안디옥교회 21일 다니엘 특새 부흥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복음에 빛진 자가 전하는 복음’

필라 안디옥교회, 21일 다니엘 특새 부흥회 성료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복음에 빛진 자가 전하는 복음”이란 주제로 21일간 다니엘 특새부흥회를 가졌다.

매일 평균 250명, 토요일에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다음 세대에 게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 뜨거운 소망을 품고 기도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더 이른 새벽에는 성전 환경에서 히스패닉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지난 12일 새벽에 그들은 4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위해 샌드위치를 정성스레 준비했다. 그 빵 속에는 따뜻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풀며 살려주는 그들 신앙의 건강함과 넉넉함이 보였다.

안디옥교회는 한국어 회중 뿐 아니라 영어 회중, 히스패닉 회중 등이 함께 어울려 디아스포라로서의 신앙과 비전의 열매를 맺고 있다.

호성기 목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이 사는 불경건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전하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어진다면 그 한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 한 사람, 복음에 빛진 자가 돼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데 기쁨으로 삶을 드리는 그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세상 속에 축복의 열매가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자”고 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글로벌케네터켓여목연 창립 및 전도와치유교회 이전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공동체” 로 승리하자!

글로벌케네터켓여목연 창립 및 전도와치유교회 이전예배

글로벌케네터켓한인여성목회자 연합회(회장 조상숙 목사) 창립 및 전도와치유교회(조상숙 목사사무) 이전감사 예배가 17일 오전 11시에 전도와치유교회에서 열렸다.

조상숙 목사는 “글로벌케네터켓여목연 창립과 전도와치유교회 이전을 감사한다”며 “작은 공동체로 시작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공동체가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구원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소망한다”고 감사말을 전했다.

1부 예배는 박영주 목사(글로벌연합총무) 인도로 기도 안경순 목사(뉴욕총무) 성경봉독 박도보라 목사(뉴욕총무기도담당), 특송 글로벌살렘찬양단, 말씀 전희수 목사(글로벌연합회장), 헌금특주 제니과, 헌금기도 장만 목사(뉴저지총무), 축사 Wayne Lavender 목사(Faith united Methodist Church) 권금주 목사(글로벌뉴욕여목연 회장) 이근원 목사(케네터켓목사회

회장) Thomas John Havender 목사(Executive Director Overse Ministries Study Center at Yale), 권민 황현조 목사(케네터켓교협 중경회장), 감사말씀 조상숙 목사, 광고 김미경 전도사(회계), 축도 오명목 목사(뉴욕자문위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공동체”(행13:16-24)란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며 “말은 일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와 기도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글로벌케네터켓한인여성목회연합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조상숙 목사 △총무 유은주 선교사 △서기 김미옥 선교사 △회계 김미경 전도사.

(기사제공: 글로벌케네터켓여목연)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주최 제20회 학생음악회가 한길교회에서 열렸다

“하나님백성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라”

월드미션대 음악과 제20회 학생음악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는 본교 음악과 제 20회 학생음악회를 17일 저녁 7시30분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개최했다.

송정명 총장은 “가을에 깊어가고 있는 이 밤에 학생음악회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한 후 “11년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설립했다. 지금은 음악과가 괄목할 정도로 크게 발전해 미국교계 음악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휘자, 반주자, 독

창자, 찬양리더, 그리고 후진들을 양성하는 교육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20번째 맞이하는 음악회가 의미 있고 뜻 깊은 음악회가 될 것이며 준비한 학생 한명 한명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길”이라 말했다.

음악회는 지휘전공 조지현, 오정근, 황시내, 전찬환, 염영옥, 피아노 안정희, 소프라노 김희우, 신선미, 김희우, 엘도 조지영, 테너 오위영, 황호진, 바리톤 데이빗 크레스 등 본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다. (박준호 기자)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5면에서 계속〉

생각해보면 오바마도 처음부터 동성결혼합법화를 주도하지 않았 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조금씩 “친동성애 정책”을 화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며 펼치고 있다가 미연방대법원에 자신이 원하는 극단진보주의 판사를 2명을 고용하고서야 작년에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을 (수천년 내려온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터뜨린 것이기 때 문입니다.

결론 및 중요한 기도제목:

지금 트럼프는 부통령 당선자인 마이크 펜스를 통해서 미국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리더들을 뽑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이나 그의 한 마디에 집중하기보다 온전히 우리의 구주 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 습니다.

미국 안에 번져있는 누룩과 같은 거짓과 미혹의 영이 속히 꺼지고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선교단체 디렉터 청빙

선교단체인 GUM(Global United Mission)이 디렉터를 청빙한다. 자격은 영혼구원과 선교에 소명의식이 투철하고 선교사역에 합당한 인격, 전문성, 훈련과정, 가족사항, 재정문제 등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선교경력 8년 이상, 이중언어 소통이 가능한 분.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사항, 이메일주소 포함), 최종학력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혹은 선교단체 선교사 허임 증명서, 자기소개서 및 신앙간증문, 개인 선교비전, 추천서 2통(교역자, 선교사 각 1통)이 필요하다. 접수마감은 12월 15일까지. 우편주소 18 Essex rd, Paramus, NJ 07652, ▲문의: sanghonam@hotmail.com 남상호 목사

성인 1.5세 담당 목회자 청빙

필그림교회(담임 양준길 목사)가 1.5세와 젊은 부부를 위한 사역을 담당할 목회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식인간 신학교 졸업 및 목회관련 소정교육을 마치고 개혁신학교에서 안수받거나 받을 예정인 3-10년 성인 사역경력자. 영어가 유창해야 한다. CV 혹은 이력서, 개인신앙간증서, 설교 2편(비디오), 추천서 2통이 필요하다. ▲문의: hr@pilgrimchurch.org

아동부 사역자 청빙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PCUSA)가 파르타입 아동부(PRE K-6th Grade) 사역자를 청빙한다. 정규신학교에 재학 중(M.Div.)이거나 졸업자로 영어설교와 성경공부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회학교를 섬겨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신앙고백서(소명 및 비전, 가족사진포함, 가족소개 포함), M.Div. 재학 혹은 졸업증명서, 원고 설교 1편, 추천서 2매. ▲문의: (347)502-2571 nycdchurch@yahoo.com

EM 사역자 청빙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 PCUSA)가 EM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ATS에 가입된 신학교 출신의 M.Div 재학생 혹은 졸업자 이상으로 이력서(학력 및 사역경력, 최근 본인 사진 한/영 각 1부), M.Div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자기 소개서 및 신앙고백서 한/영 각 1부, 추천서 2부(현재 섬기거나 출석하는 교회 담임목사 1통과 신학교 교수 혹은 멘토 1통)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이메일(haknesiah@gmail.com)이나 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718)229-9191



동부개혁장신 제 30회 장학기금 찬양축제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찬양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동부개혁장신 제 30회 장학기금 찬양축제

동부개혁장교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박사) 제 30회 장학기금을 위한 2016년 마지막 찬양축제가 16일 저녁 8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제 1부 예배는 학장 이규분 목사 인도로 기도 진행복 학우, 성경봉독 김지영 학우, 찬양 동부개혁장신 찬양대, 말씀 김성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사 김성국 목사는 “찬미하고 감람산으로”(막14:2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찬양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후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는 본문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그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묻고 시편 113-118편을 소개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 날마다 찬미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강조하고 기도 후에는 능력이 없음을 역설했다. 제 2부 찬양은 독창 최정환 학우(“주님 따라 가는 길에”), 합창, 간

증 허장길 학우, 독창 이재환 학우(“사명”), 봉헌기도, 합창, 축도 장영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합창곡으로는 “주님과 같이”, “오직 예수”, “마라나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온 맘 다해”, “영광의 찬양” 등을 불렀으며 바순연주에 장보선 학우, 바디위십에 조지영 학우 등이 협연했다. 합창단 지휘는 윤원상 교수, 올겐 윤현주 집사, 피아노 김대진 전도사가 맡았다. 동부개혁장교회신학교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단신학교로 1987년 설립돼 44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목회자로, 선교사로 미주 각 지역과 러시아, 중국, 일본, 터키,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 찬양제는 학교 설립 때부터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 개최됐으며 올해로 30회를 맞았다. (유원정 기자)

“마음을 움직이는 10가지 대화기술” 정정숙 박사/김충정 이사장, 서울서 출판기념회

패밀리터치 정정숙 박사과 김충정 이사장이 쓴 “마음을 움직이는 10가지 대화기술”(정정숙, 김충정 저) 출판기념회 및 북 사인회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렸다. 저자 정정숙 박사는 이 책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썼다고 저작동기를 밝혔다. 정 박사는 출판기념회와 더불어 한국가정사역협회와 한국기독상담협회의 연례학술대회에서(1차 11/7, 2차 11/17-18) 10가지 대화기술 세미나를 인도하고

귀국했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정정숙 박사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뉴저지교협 “말씀운동 펼치겠다”

제 30회기 시무 및 회장 임실행위 취임예배



뉴저지교협 30회기 시무 및 회장 임실행위 취임예배에서 김종국 회장과 참석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



뉴욕교협이사회 제30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왼쪽부터 첫 번째 강영규 신임이사장, 김홍석 교협회장, 이상호 직전이사장.

뉴욕교협이사회 새 이사장 강영규 장로 제30회 정기총회, “교협 돕고 이사회 활성화 위해 노력”

뉴욕교협 이사회가 지난 14일 제 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강영규 장로를 선임했다. 이사가 된지 1년 만에 이사장이 된 강영규 장로(뉴욕기쁜교회)는 “전임 이사장이 하던 대로 교협을 돕고 이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취임인사를 했다. 회부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교협 회장 김홍석 목사는 “절 받는 사람이 됩시다”(창37:2-11)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하고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절을 받는 꿈을 주셨다”며 요셉의 꿈을 복음으로 풀고, “요셉이 꿈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다고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라며, “절을 받을 수 있는 이사회가 되라”고 부탁했다. 임원선거에서는 부이사장 강영규 장로를 만장일치 박수로 이사장에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 강영규 장로는 회장 김홍석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뉴욕기쁜교회를 섬기고 있어 교협과 이사회와의 원활하게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게 됐다. 이번 총회는 이사회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10월 교협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수정회칙(△각 회원 교회가 파송한 총회 평신도 대표의 자동으로 이사가 된다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3인 등 4명이 교협 총회의 자동총대가 된다) 개정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기존의 이사 9명이 참석하고 4명이 권한을 위임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임회원은 없었다. 그러나 현 이사진들은 향후 회칙개정에 따른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글로벌뉴욕여성목원 첫 ‘어머니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 글로벌뉴욕여성목원 첫 ‘어머니기도회’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주최한 첫 “어머니 기도회”가 16일 오전 10시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어머니 기도회는 어머니들을 초청하며 다음과 같이 어머니 기도회를 소개했다. 첫째, 기도의 동역자들과 만남을 통해 힘을 얻는다. 둘째, 사랑의 공

동체를 이루는 교제로 쉽다. 셋째, 전인격적 치유로 평강과 기쁨 얻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 넷째, 반드시 응답이 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1부 예배는 권금주 목사 인도로, 기도 오명의 목사, 설교 나명자 목사(“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눅23:28), 합심기도 인도 나명자 목사, 광고 안경순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친교 후에는 이진아 목사 인도로 진행된 웃음치료 순서를 통해 모든 어머니들 얼굴에 환한 은혜의 꽃이 피는 시간을 가졌다. 어머니 기도회는 매월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12월 기도회는 12월 21일) 기쁨과영광교회에서 열린다. 자세한 문의는 권금주 목사(646-247-8258), 나명자 목사(917-595-0256)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글로벌뉴욕여성목원)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30회기 시무 및 회장 임실행위 취임예배가 21일 저녁 5시 뉴저지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성경으로 생명을 회복하는 교협”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취임한 회장 김종국 목사(새연약교회 담임)는 눈물의 취임사를 통해 혼탁한 조국과 미국의 상황을 직시하며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500년전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김종국 목사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문득 창세기 1:2 말씀이 생각났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마틴 루터가 외친 ‘백 투 더 바이블’을 기억하며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사회가 부패하고 더러워져 인간들이 악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사람이 악하기에 사회가 이처럼 추하고 더럽고 혼돈 속

에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한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가 바뀌어질 수 없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이번 30회기는 말씀운동을 이루기를 원한다. 뉴저지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생명을 회복시키는 뉴저지가 되도록 우리 임원단은 마음을 다해 섬길 것이다. 함께 동참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길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예배는 기도의 연속이었다. 이병준 증경회장의 시무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순서를 놓고 모든 참가자들이 한마음으로 일어나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순서를 가졌다. 또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가 풍전등화 같은 조국의 현실 앞에 발표한 성명서를 유인물로 배부했다.

부회장 윤명호 목사도 조국의 현실에 대해 애도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또 사무총기 육민호 목사가 마무리 기도를 맡아 마지막까지 열띤 기도로 마쳤다.

이날 축사는 김홍석 뉴욕교협회장장과 뉴저지목사회 유재도 회장이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신임회장 이종명 목사...정관 재정비 뉴욕교협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3차 정기총회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 산하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회장 유상열 목사) 제 3차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 교협 사무실에서 개최된 신임 회장에 이종명 목사가 선임됐다.

1부 예배는 박이스라엘 목사 인도로 기도 김상태 목사, 설교 최장섭 목사, 축도 이만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초대 회장 최장섭 목사는 “진리 수호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갈 1:6-10, 유1:7-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가 할 일은 진리 말씀을 전파하고 이단으로부터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생명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이단 사이비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바른 복음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둘째, 음란과

무관하고 물질관계가 깨끗해야 한다. 셋째, 거짓이 아닌 진실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회의는 유상열 목사 사회로 박진하 목사 기도 후 박이스라엘 목사가 총무보고를 했다. 박 목사는 2014년 7월 신천지 및 뉴욕지역 이단 대책세미나(강사 이종명 목사, 2016년 4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신사도 등 세미나(강사 한선희 목사) 개최를 보고했다.

또 그 외에 여러 사이비 이단과 관련된 사건들을 신고 받아 적절히 대처했다고 보고했다.

유상열 목사는 2년 임기의 새 회장으로 이종명 목사를 적극 추천했다. 유 목사는 “이단대책은 절대적 소명이 필요하다”며 “뉴욕 뿐 아니라 미주 전체와 한국에서도 이단대책 사역을 해온 이종명 목사가 신임회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새 회기는 정관을 재정비해 교협 총회목에 수록하기로 결의했다. (유원정 기자)



나영애 목사가 노회장으로서 소속 교회 행사에 참여했다.

나영애 목사, RCA퀸즈노회 첫 한인여성 노회장

나영애 목사(포레스트파크개혁장로교회)가 지난 10월 18일 RCA 퀸즈노회 노회장으로 취임했다. RCA 교단에 속한 뉴욕지역 15여개의 한인교회들은 뉴욕한인교협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나 행정권한은 없다. RCA 퀸즈노회에는 미국과 한인교회 등 28여개의 교회들이 속해 있다.

나영애 목사는 RCA 뉴욕한인교협 회장 임기를 마치고 같은 해 퀸즈노회 노회장이 됐다. 한재홍 목사와 김종덕 목사가 퀸즈노회 노회장으로 역임한 바 있지만, 한인 여성 목회자로서는 처음이다. 나영애 노회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와 겸손으로 1년 동안

노회를 섬기겠다. 많은 한인 목사님들의 기도와 격려 때문에 노회장직을 맡을 수 있었으며, 임기동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감사와 부탁을 했다.

또 나 목사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열리는 퀸즈노회의 기도모임을 한인교회에서도 열 수 있도록 한인 목사들에게 요청함으로써 한인 목사들과 타민족 목사들과 대화의 광장을 열어 RCA 안에 있는 동성애 및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RCA한인교협)



오렌지한인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이종현 지휘자에 지휘에 맞춰 모든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음악으로”

오렌지한인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음악회

오렌지한인교회(OKC, 담임 김윤진 목사) 설립 40주년 기념음악회가 20일 오후 6시에 열렸다.

김윤진 목사는 “OKC 40주년 기념음악회에 함께하신 분들께 축복한다. 지난 40년을 함께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준비했다”며 “특별히 새롭게 설치한 파이프오르간과 OKC성가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음악으로 드리게 됐다. 음악회를 통해 울려 퍼지는 찬양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적시고 우리주위에 퍼져 나가기를 소원 한다”고 말했다.

가대 대장) 개회기도로 시작된 음악회는 흥영례 집사의 오르간 연주, 연합합창, 여성중창, 흥영례 집사의 오르간 연주로 이어졌다.

특히 연합합창단이 ‘창조물과 함께 십자가 군병들아’, ‘은 천하 만물 아라라’, ‘다 감사드리세’를 불렀으며 앵콜곡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함께 불러 음악회가 단순히 보는 음악회가 아닌 4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는 음악회로 가꾸었다.

이날 음악회는 김윤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정신건강국 주최 세미나가 연말연시 계절성 우울증 주제로 열렸다

‘연말연시 계절성 우울증’ 주제 LA정신건강국 세미나, 강사 안정영 이주호 코디

LA정신건강국 세미나가 ‘연말연시 계절성 우울증’이란 주제로 17일 오전 10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안정영·이주호 코디네이터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렸다.

이날 안정영 코디네이터는 “스트레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만 정작 스트레스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을 이어나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살을 살아갈 때 목적을 갖는 것이 좋다.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들은 물질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3명중 1명꼴로 우울증에 걸린다고 한다. 많은 한국인들이 우울증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므로 우울증에 대해 수치심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코디네이터는 “규칙적인 수면을 갖는 것이 좋으며 계절성 우울증은 바로 잠이 많아지는 특성이 있기에 하루 8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하루 30분정도 꾸준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물 섭취, 그리고 비타민 등 영양제 보충, 심호흡을 크게 해주는 숨쉬기운동을 자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언제 자신이 행복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삶을 재평가 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살을 살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진다.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 언급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게 게시판 west

나성영락교회 부흥회

나성영락교회 부흥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주제로 12월 2일(금)부터 4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문의: (323)227-1400

윤일흠 목사 시집 출판감사예배

연합감리교회를 은퇴하고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윤일흠 목사의 첫 시집 ‘거기 빛이 있기에’ 출판 감사예배가 11월 27일(주) 오후 4시 로스펠리교회(담임 신병우 목사 1800 N. Western Ave., LA)에서 열린다.

▲문의: (213)760-0003

NTSW 설명회

한인신학교 NTSW(New Theological Seminary of West)가 LA지역에서 개설을 앞두고 설명회를 30일(수) 오전 10시30분 파사데나장로교회에서 갖는다. 설명회는 PCUSA 샌퍼난도 노회 노회장인 강일준 목사가 한다.

▲문의: (818)419-3021

효과적인 대화법...좋은 관계는 주는 것

한인가정상담소 제6회 분노조절 세미나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주최 분노조절과 효과적인 대화법 세미나가 22일 오전 11시 안현미 상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됐다.

안현미 상담사는 “분노 즉 화는 우리들 안에 있는 4가지 감정 기쁨, 즐거움, 화남, 슬픔 중 하나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화를 참지 말고 건강하게 내야 한다. 화가 나는 원인은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이며 잠재적 원인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슈와 트라우마 등 외부적 요인”이라 설명했다.

안 상담사는 “분노조절은 평생시습을 해야 가능하다. 그러면 화가 날 때 적용해 나갈 수 있다”며 “흔히 문제가 발생할 때 결과가 초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분노조절과 효과적인 대화법 세미나에서 안현미 상담사가 강의하고 있다

점을 두면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보다 과정에 초점을 두면 화가 덜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분노조절방법은 왜 분노가 났는지 인식해야 하며 화가 난 것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화가 나게 된 이유를 표현해야 하며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분노조절이 되지 않게 되면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가 나는 감정 등은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매일 5분정도 배우자와 특별한 대화시간을 만들고, 오늘 있었던 일 3가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좋은 관계는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간직하자. 그리고 매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강의에 이어 참석자들이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제14회 시각장애인 장학기금 마련 찬양의 밤이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주최로 열렸다

제14회 시각장애인 장학기금 마련 찬양의 밤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주최

비전시각장애인센터(HSM 대표 추영수 목사)가 주최한 제14회 시각장애인 장학기금 마련 찬양의 밤이 20일 오후 1시30분 마음이가난한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개최됐다.

추영수 목사는 “풍성한 결실과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계절을 맞아 시와 찬미와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찬양의 밤을 마련했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이끌어 준 우리 장애 멤버들에게 새로운 힘과 도전 그리고 용기를 주시길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정연 전도사(햇불선교회 대표, 미주기독교방송국 아나운서) 사회로 열린 찬양의 밤은 이은수 목사 오 밴드, HSM찬양선교단의 오카리나 연주, 유민영, 추지영, 이여울, 정화영, 조은별, 주광욱과 이여가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공연을 펼쳤으며, 이영숙 씨가 간증을, 채동선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다.

한편 찬양의 밤은 25일(금) 오후 7시30분에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두 번째 공연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동부장로교회 고 이용규 목사 장례예배

고 이용규 목사 장례예배가 19일 오전 10시 동부장로교회(담임 김정오 목사)에서 열렸다.

김정오 목사 집례로 열린 장례예배는 김인권 장로가 기도했으며, 신한국 목사(복음대학교 총장)가 ‘주께 받은 사명수행에 충성하신 주의 사자’(행20:23-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본교회 찬양대가 조가를 불렀다.

이어 이기홍 장로(사우스베이션교회 원로)와 고인의 손자 임매두 형제가 조사를 했으며 나은수 목사(미주노회 총무)가 축도했다.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에서 열린 하관예배는 김정오 목사 집례로 열렸으며 차주성 목사(토론토 평강교회)가 기도를, 김정오 목사가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황대원 목사(미주노회 서기)가 축도했다.

고 이용규 목사는 1932년 11월 10일 평안북도 정구군에서 출생, 1951년 한국전쟁 중 14후퇴 시 남하했으며 1973년까지 명림교회에서 목회했다. 1973년 9월 미국으로 이민, 동부장로교회를 개척했다. 1991년 첫 성경강해 설교집 ‘주의 길을 예비하라’를 출간후 2015년까지 제41권 ‘세미한 소리를 들

리’를 출간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0일(출생일과 같음) 오후 10시 27분 향년 8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인은 부산동아대학교(BA), 고려신학대학교(M.Div), 페이스신학교(종교교육학박사)를 졸업했으며 부산평화고등학교 교사(성경, 역사), 고려고등학교 교사, 미국기독교종합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계약신학대학교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유가족으로는 이우영 사모와 사이에 1남2녀와 4명의 손자녀가 있다.

(박준호 기자)



고 이용규 목사 장례식이 동부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4>감사한인교회</h4> <p>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나성영락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성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h4>나성제일교회</h4> <p>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p> <p>Tel. (562)691-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4>나침반교회</h4> <p>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h4>남가주든든교회</h4> <p>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 찬양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p>	<h4>남가주사랑의교회</h4> <p>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후 1:20 영아권(영소·KOC, 영림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klcc.com</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 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h4>등문교회</h4> <p>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6:30(토) 금요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pc.org</p>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여져 있는 우리의 통일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박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대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성탄)4부예배: 오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p> <p>www.mpl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빛과 소금의 교회</h4> <p>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임어예배: 오후 1:30(수·목·금)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요셉선교회</h4> <p>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orrance, L.A., CA 90006</p>	<h4>얼버린침례교회</h4> <p>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www.irvin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4>월서크리스천교회</h4> <p>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새벽기도회: 365일 24시간</p> <p>www.graceml.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p>	<h4>주님새문교회</h4> <p>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성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nchurch.com</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scic.org</p>	<h4>중은마을교회</h4> <p>담임목사 :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주일학교: 오전 6:00(토)</p> <p>www.socalmissionschurch.org / e-mail: pastor@acornstone.com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학교: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stony.com / e-mail: pastor@acorn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4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토렌스조은교회</h4> <p>담임목사 : 김박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성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55 /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996-4400 Fax. (718)99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전국 6만 교회 성도 5분간 통성기도 20일 한국교회 시국기도일...정의 회복위해 두 손 모은다

한국교회가 오는 20일 추수감사 주일을 시국기도일로 지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의와 안정, 회복을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전국교회는 주일 대예배 시간에 5분 간 나라를 위한 통성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은 17일 발표한 추수감사절 메시지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대통령의 통치력 상실과 측근 비리에 따른 사법 수사, 국민들의 반대시위가 맞물려 급격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는 국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기회를 찾았다. 전국 성도들이 한국사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독려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도 추수감사주일 오전 11시 예배시간에 5분간 전국 6만 교회와 함께 국가안정과 발전을 위해 기도한다. 교단은 시국 성명서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회(한교연)의 통합을 논의하는 기구인 한국교회연합추진위원회는 전국 교회가 공동으로 추수감사주일에 시국기도를 갖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오는 20일 시국기도일에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국정이 더이상 혼란 속에 표류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특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이땅에 임하도록 간구하자”고 당부했다.

조일래 한교연 대표회장도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왔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5분 동안 통성으로 한국사회를

위한 기도에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여성삼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이동석 목사)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총회장 김영수 목사)로 구성된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는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을 ‘한성연 시국기도주간’으로 정했다.

한성연은 이날 발표한 ‘한국성결교회 공동기도문’에서 “이 땅의 그 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을 뉘우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돼 선진국가로 도약하고 강한 대한민국으로 일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다.

예장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은 지난 14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이 잘못된...주님 만나게 하소서”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서 5000여명 국가안정 간구

국가기도연합은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4차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안정과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도록 간구했다.

조갑진 서울신대 부총장은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죽이려던 군중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면서 “여인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분노의 돌들이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구

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면서 “우리 역시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생명을 얻게됐다”고 강조했다.

조 부총장은 “원수를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도, 결혼도 하지 않고 한국의 소외된 자들을 돌봤던 영국의 간호사들도 모두 십자가 보혈의 사랑에 응답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용서와 희망의 음성을 한민족에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온전한 회복이 성령께 의지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부총장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 반면

어둠의 영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면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동포, 정치가, 청년, 청소년을 속이지 못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고 도전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중보기도를 인도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인도하고 박 대통령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번 기회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자 도전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연결고리를 확실히 끊도록 중보기도 하자”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님을 목상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간구하자”고 부탁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바른 지혜와 능력을 구하도록, 주변에 오섭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도록 중보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통령이 온전히 바로서고 대한민국이 바로서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갖도록 중보기도 하자”고 말했다.

5000여명의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국난 해결과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 부르짖었다.

참석자들은 ‘조국여어 안심하라, 성도들이 기도한다’를 외친 뒤 간절히 통성기도를 했다.

“조국에 평강을” 선교사들도 시국기도 동참

한인세계선교사회, 금식기도문 발표

한인세계선교사회(KWWMF)는 최근 ‘조국을 위한 금식기도문’을 발표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2만7000여명의 선교사들이 이날 말까지 최소 한 끼 금식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KWWMF는 기도문에서 “현재 선교

지에 파송 받은 한인 선교사들은 위기를 맞은 조국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조국에 안정과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께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과 지혜를 주셔서 국정의 위기가 극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다.

KWWMF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동안 교회 성장주의와 물질주의에 집중하던 일들에 대해 철저한 회개를 하며 기도운동을 일으켜 복음전도와 선교에 더 집중할 것을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혼란을 당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 전

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조국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달라. 한국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KWWMF 회원 선교사들은 기도문에 따라 11월 30일까지 한 끼 금식과 기도에 참여하면 된다. 기도제목은 총 9개로 한국세계선교협회 홈페이지(kwm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고 말했다.

오륜목자교회 박천일牧사는 ‘위정자를 위해’, CTS목자교회 임재환 목사는 ‘국민을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중경회장 지덕 목사의 격려사, 한국교회연합 명예회장 김윤기 목사가 나라를 위해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한국중앙교회 헬시비중찬단의 특송과 한기총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의 인사말, 한미기독교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상형 사관의 광고에 이어 다같이 애국가 제창을 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의 축도로 구국기도회를 마치고, 한기총 사무총장 조석규 목사의 오찬 기도가 이어졌다.

한편,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과 한기총은 오는 29일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교회에서 원로목회자들이 모여 혼란에 빠진 나라와 상처받은 국민을 위한 ‘강원지역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 구국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써 영의 눈을 가져야 할 것”이라 했다.

한기총총 총재 정근모 장로는 평신도를 대표해 메시지를 전했다.

정 장로는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간, 회개와 나라를 위한 통성기도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어지러운 현실의 지혜로 이겨갈 수 있도록 간구하자”라며 “우리 모두가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예수혁명’을 하자”고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 준비위원장 김진옥 목사는 “헛된 습관과 세상적인 것에 집착한 나머지 오늘의 이 혼란스런 대한민국이란 결과를 낳았다”라며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잘못을 꼬집기 보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밝혔다.

행사 추진위원장 이주태 장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라를 위한 통성기도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어지러운 현실의 지혜로 이겨갈 수 있도록 간구하기 위해 자리를 준비했

‘동성애 옹호기업에 가산점’

인권법 개정안 공식 철회

기업 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식 철회됐다.

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 등 13명은 21일 법안 철회요구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철회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권존중 인증제’로 국가인권위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입찰에 참가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성적 지향(동성애)’ 문구가 들어있어 기업들의 동성애 지원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동성 국민의당 의원은 “동성애를 전면에서 반대해 온 사람이 동성애 옹호·조장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면서 “법

탈북민 10명 가운데 4명은 크리스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6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

2007년 이후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크리스천인 것으로 밝혀졌다. 종교활동을 폄박하고 제재하는 북한의 실상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김용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탈북민의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등을 담은 ‘2016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7년 이후 입국한 탈북민 1만17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8년부터 종교자유백서를 발간했으며 이번이 아홉 번째다.

조사대상 탈북민은 자신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기독교 44.2%(4872명), 불교 10.7%(1180명), 천주교 10.2%(1121명) 순으로 답했다. 무종교는 28.8%(3177명)였다.

종교활동을 시작한 시점에 대해선 입국 후 국가정보원에 있을 때부터라는 답이 33.9%(2791명)로 가장 많았다. 중국에서 시작했다고 응답한 이는 30.6%(2518명), 하나원 29.5%(2435명), 제3국 4.2%(344명), 북한 1.9%(154명) 순으로 파악됐다.

북한에서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신천지, 유사 언론단체 내세워 포교

‘한국신문방송기자협회’ 명의로 이만희 초청 세미나 홍보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이 ‘한국신문방송기자협회’라는 임의 언론단체를 앞세워 포교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계에선 “혹세무민하는 신천지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한국신문방송기자협회(회장 이승)는 17일 오후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공군회관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강사로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정치·경제·사회·종교계 지도자 600여명을 초청했다고도 주장했다.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인터넷언론사 기자 대다수를 회원으로 보유한 ‘한국기자협회’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koreajournalist.org)도 기자회견의 홈페이지(journalist.or.kr)와 혼동을 일으킨다. 의도적으로 일반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석된다.

협회 회장인 이씨의 직함은 ‘KBS 외신부장’로 표기돼 있지만, 그는 1992년 KBS를 퇴직한 인물이다. 거짓 홍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부회장, 고문, 각 지부 지회장 등은 대부분 군소언론 또는 실체가 불명확한 언론사 소속으로 명기돼 있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이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서울시에도 등록되지 않은 임의 단체로 확인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한국신문방송기자협회는 등록하지 않은 단체”라고 확인했다. 서울시 역시 “등록된 단체가 아니다. 자기들끼리 활동하는 임의단체는 (우리에게)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교계단의 폐해

응답자의 99.6%가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종교활동을 하다 적발됐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의 수준은 정치범수용소형 51.8%(5539명), 교화소형 11.4%(1217명), 노동단련형 2.8%(298명) 등의 순이었다.

백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8월 ‘NKDB 통합 인권 DB’에 수집한 북한 종교박해 사건도 분석해 공개했다. 2007년부터 수집한 북한의 종교박해 사건은 1247건이며 그 중 종교 활동에 의한 경우가 51.7%(645건)였다. 종교물품 소지 23.7%(295건), 종교전과 10.7%(133건), 종교인접촉 5%(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은 여러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김일성 일가의 숭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심을 갖고 폄박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크리스천 탈북민이 많은 이유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 성경과 찬송가책이 많이 유입됐고, 이들의 한국 입국 과정에 많은 선교사와 교회가 함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 온 나라를 뒤덮은 마당에 신천지 교주를 초청한 이단 집회를 마치 언론단체 주최 시국 토론회인양 위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이단 전문가는 “신천지는 사법부마저 판결을 통해 사회와 행태를 드러냈다고 결론지은 바 있는 이단”이라며 “교주 이만희의 강연을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과 세계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일 사고 교주의 딸을 국정에 개입시켜 나라 전체가 들쭉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단의 수장을 강사로 초청한 한국신문방송기자협회의 의도가 뉘치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와 유사한 정체불명의 단체가 적극 활동하는 건 가법계 여길 일이 아니다. (이름 도용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군회관은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 단체에 ‘장소 사용 불가’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17일 행사는 예정대로 공군회관에서 진행되니 관련 부서는 행사에 차질없이 준비 바란다’는 휴대폰 메시지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대적자(반대자)들이 공군회관에 민원을 넣는 바람에 회관측이 취소됐다고 공식 답변하고 있다. 절대 보안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적혀있었다.

신천지 관계자는 “문자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행사는 개최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군회관 관계자가 무척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적당히 좀 넘어가자”고 했다.

한국교계 최초 ‘최태민 보고서’

기성, 전국 2793개 교회에 배포키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여성삼 목사)가 최태민씨의 실체를 분석한 보고서를 교단 소속 전국 교회에 발송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국교회가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지닌 기독교적 의미를 정리해 교단

차원에서 배포하는 것은 기성이 최초다.

김철원 기성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은 21일 “이단 사이버 종교집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현재의 국정농단과 국가보안사건의 배후에 영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기성 소속 2793개 교회에 보고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면서 “전국 성도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참회행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A4용지 7장 분량으로 최태민의 출생사 사회활동, 영세교의 출발, 대한국선교단 조직, 사회봉사 재단을 통한 비리, 최태민에 대한 평가, 현 시국에 대한 제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감리교, 시국선언 발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전명구 감독회장)는 1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라”고 요구했다. 이어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은 안 된다”며 “엄중한 국제정치와 경제위기, 대북관계, 파산 직전인 서민들의 삶 등 당면한 현안들을 한 치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감은 또 “국회는 국민통합 내각 출범을 서두르고, 특별검사를

선임하여 대통령을 포함하여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하라”며 “대통령도 법적 책임이 확인된다면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기감 감독회장과 10개 연회 감독, 미주특별연회 및 150만 감리교회 전체 성도 이름으로 나왔다. 기감은 20-26일까지 교단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했다. 또 모든 예배시간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밝혔다.

선교의 창 (66)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미 대선과 트럼프 정권을 향한 선교적 기대

지난 11월 8일 미국 제 45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1년 8개월에 해당하는 597일의 긴 레이스였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경쟁이 치열했다. CNN를 비롯 중심 방송사들은 대선 기사를 연일 탐 뉴스로 다루었다. 결과는 너무나 의외였다. 정치의 아웃사 이더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이긴 것이다. 이는 정치적 지진에 해당될 만큼 놀라운 일이었다. 그간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뉴욕타임스는 힐러리가 선거에서 질 확률은 미식축구 선수의 36야드(약33m) 앞에서 공을 넣지 못할 만큼 낮다고 했다. 이렇게 승리를 확신했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캠페인에서는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 승부의 세계는 냉엄하다.

이제 세계는 트럼프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우려반기대반이다. 이 정권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앞으로 4년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정권을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 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

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슈퍼 팩이라는 대선지원 자금도 그는 사랑했다. 이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젊은이들이 열광했다.

여론과 힘의 쏠림

트럼프는 엄밀히 말해 주류 공화당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는 사업가로서 손익계산이 빠른 사람이다. 그는 대선승리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 공화당의 옷을 입은 것이다. 그가 처음 정치판에 등장할 때 공화당의 대표주자로 나갈 확률은 1%였다. 그 곳에 있는 절고 정치적 배경이 있는 인물들이 16명이나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일찍부터 힐러리로 대세가 굳혀졌다. 샌더스가 치고 올라왔지만 힘이 부칠 수밖에 없었다. 힐러리 사단에서는 예산보다 본선에 치중했다. 그들은 트럼프가 대항마로 뜨기를 기대했다. 트럼프는 인격이나 사생활 그리고 정치

을 가진 자가 많았다. 둘째는 힐러리의 아킬레스건이다. FBI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발표는 힐러리의 삼겹줄을 끊는 격이 되었다. 더구나 오바마 의료보험료가 대폭 인상된다는 뉴스가 터졌다. 셋째,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다. 그는 America First를 열정적으로 외쳤다. 세계 우방을 이끄는 Big Brother로서의 명분보다 실리를 앞세운 것이다. 이는 미국의 러스트 벨트(Rust Belt) 즉, 쇠락한 공업 지역의 저학력 블루칼라 백인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다. 나아가 중남부를 가로지르는 바이블 벨트(Bible Belt) 사람들은 공화당의 보수적 신앙 색채를 선호하였다. 트럼프는 확실히 다수의 집토끼를 잡는데 집중했고 결국 목표를 달성했다.

새 정권이 저야 할 과업

미국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패자로 극명하게 갈려 있다. 자칫하면 백인 우월주의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민자 나라답게 누구에게나 편견 없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셋째, 미국은 세계를 리드하는 선두에서 있다. 축복이 큰 만큼 사명도 크다. 미국 우선주의가 선린 우방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 미국만을 위한 왕국을 건설해서는 아니 된다. 인류 평화와 복지를 두루 살피고 선도해야 한다.

맺음 말

트럼프(Trump)란 카드놀이(카드)의 으뜸 패를 의미한다. 나팔이란 뜻도 있다. 한 마디로 어떤 일을 승부해 이기면 나팔을 불고 싶을 것이다. 사실 그는 부동산업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그것은 일종의 도박적 요소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도 아니면 모였다. 트럼프는 그 이름에 맞게

청교도적 신앙 가치로 사회기강이 서기를 기대한다.
이민자의 나라답게 편견 없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균형추 역할을 기대한다.

에 대한 무경험 등으로 약점이 많다고 보았다. 예상대로 두 사람은 본선 레이스를 펼쳤다.

힐러리는 많은 지원사격을 받았다. 대부분의 언론들, 재력의 큰 손들, 오바마 정부 등 정권 실력자들, 유럽을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들이 직, 간접으로 그녀를 밀었다. 반면에 트럼프 진영에는 계속 비판적인 과열음이 나왔다. 선거 참모가 계속 바뀌었다. 부시 가문과 린지 전 대선 주자 그리고 현직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다수의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지지를 철회했다. 승리의 저울은 이미 기울어 가는 듯 했다.

트럼프 승리 배경

한데 어떻게 정치(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첫째는 정치 환경이다. 주류 격인 미국인(변화를 원했다. 그들은 지난 8년간의 민주당 정권에 지루해 하고 있었다. 힐러리는 오바마의 정권의 연장선으로 보았다. 또한 민주당의 이민 정책, 테러의 대체능력, 의료보험제도, 실업률 등에 불만

존 맥스웰(John C. Maxwell) 목사는 후보자를 택할 때 인격과 삶보다 정책을 우선시하라고 했다.

왜 미국인은 트럼프를 택했나? 그의 정견 때문이었다. 하지만 불안함이 있다. 그가 잘할 수 있을까? 세상에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하고 권력을 잡으려면 정치를 하고 명예를 얻으려면 학자나 창작자가 되라는 말이 있다. 문체는 권력과 재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타락의 지름길이다. 당선자가 과연 마음을 비우고 정치에 올인할까? 또 하나 그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해왔다. 무역은 상대적이다. 힘 있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이를 테면 한반도를 경제논리로만 보면 문제가 있다. 이제 그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청교도적 신앙 가치로 사회 기강을 잡는 일이다. 신앙이 무너지면 도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둘째, 미국 민을 하나로 엮는 것이다. 현재 승자와

살아왔다. 원컨대 그의 천성대로 강렬한 기질이 정치판에 선하게 쓰임 받기를 기대한다.

삼국지에 "난세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역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영웅을 필요로 하는 때이다.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소동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난세적 요소가 짙다. 도처에 음습하는 어둠의 세력이 깔려 있다. 중동의 끝없는 전쟁과 한반도의 긴장 그리고 세계에 살림을 헤치는 치열한 이권 싸움이 있다. 자고로 한 국가의 통치자는 하늘의 뜻이 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트럼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는 변화이다. 이 참에 확 바꾸기를 기대한다. 좌고 우면하지 말고 탐욕스런 월가를 순박야 한다. 성경적 가치로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사회 기강이 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세운 God Bless America가 회복되어야 한다.

jsong007@hanmail.net

선교 편지

헝가리

Dear, 기도와 사랑, 또는 물질은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녕하십니까?
만주의 아름다운 계절인데... 아! 조국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편 90:12)

올해도 두 달 남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헝가리어 성경통독'을, 현재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왕상 3:9).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삼상 3:9). 솔로몬과 사무엘에 관한 말씀인데, 두 구절이 다, 3장 9절에 나와 있어서 참 신기합니다.

기도와 사랑, 또는 정성껏 보내 주신 물질, 감사합니다. 주여...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와 소식, 기도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1. 두 해에 걸쳐 단기선교를 왔던, 독일의 한 한인교회의 "전교인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3월 동안 저는 일곱번 성경말씀을 전했고, 서 선교사는 어린이들을 맡아 네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늘 헝가리말로 하다가, 모국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거리에서, 섬기면서 깨달은 주님의 사역들과 말씀들... 아버지여...!

2. 올해는 "단기선교"이 친구들 단위로 두 번, 교회 단위로 두 번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번 교회팀(7명)과는, 이곳 '특수학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저희 주일학생 중 네 명(멜린다, 브리기, 비비안, 르카르도르)이 난독증과 자폐증으로 다니는 "Complex Primary School and Specialized Service Center"인데,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할 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3. 드디어,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태권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딤후4:8). 헝가리인 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세운 God Bless America가 회복되어야 한다.

4. 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악기수업"도 시작되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음악공부를 했던 신집사님이, 주일 오전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타를 가르치는 분도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도 주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5. 저희는 주 단위로 루틴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주일: "쇼 & 빌라고샤(소금과 빛) 개혁신교" 주일 예배와 급식/ 어린이 주일학교 △월: "거리의 교회" 허타르 역 다리 밑, 예배와 급식 △화: "거리의 교회" 남부역, 예배와 급식, 이발 △수: "살라쉬 거리" 가정교회, 심방/ "다니엘 성경공부반" △목: 사무적인 일 처리와 심 △금: "회시 거리" 가정교회, 심방/ (기숙사 체험, Field Trip 사역) △토: "토요학교" 영어와 태권도 수업/ "할렐루야 성경공부반"

6. 저희 부부와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어른예배: 임레& 일디코 전도사 부부 △어린이 주일학교: 피테르 전도사님과 원선생님, 크리스티나, 에스테르 △토요학교: 영어-원선미 선생님, 에스테르, 지니, 태권도-툰데, 토미 △악기수업: 피아노(신디사이저)-신희선 집사님 △성경공부: 할렐루야팀(토)/ 다니엘 팀(수): 로베르트 △급식준비: 산도르, 캐티(엘리스).

저희 부부는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와 말씀, 실제적인 준비, 동역자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때마다 시마다 운전을 도맡아 하고 있는 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제 눈의 시야가 더 이상 좁아지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

7. 헝가리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재정비로, 저희 선교법인 재발급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까지 기한인데, 저희는 지난 6월 1일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교법인, "Cultural Mission Institute Foundation" 이름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서, 저희 부부 함께 Walking Prayer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제목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편 90:12)

고맙고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서명희 드림.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선교 편지

필리핀

1. 은퇴비자 나왔습니다.

2015년 작년 1월에 잠보양가 지역에서 한국인 한 명이 납치된 후 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는 한국의 여러 언론 뉴스에 필리핀 남부 저희 잠보양가 지역이 보도가 며칠 계속해서 되더니 한국 외교부에서는 12월 1일부터 한국인 여행 금지 구역과 한국인 강제 철수 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2016년 4월 28일 외교부의 '여권 사용제한 등 국가·지역에서의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거부 처분 통지서' 결과가 있는 후에 여러 기도의 동역자 분들이 저희 선교지의 상황을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은퇴비자 비용 모금에 동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전의 박 권사님이 "많이 도와드릴 힘은 없지만 벼돌 하나 쌓는다는 마음으로 필요 금액의 1% 벼돌을 쌓도록" 헌금을 주셨습니다. 벼돌 한 장, 한 장이 모여 벼를 이루며, 벼이 사방으로 모여 큰 건물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가슴이 막히고 망치로 맞은 듯 한 무거운 통증을 느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벗어날 수 있었고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3개월간의 모금 기간 가운데 우리 부부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은퇴비자 준비 비용이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채워졌을까?" 생각하였는데 우리 가족이 필리핀 남부 지방에 있다 보니 북부 마닐라까지 비자 서류 준

비로 우리 부부와 막내 준탁이가 비행기를 몇 번 타고 올라갔다 내려야 했고, 장남 현탁이를 포함해서 반드시 해외에 나갔다 돌아와야 해서 그 비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필요함을 아시고 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역자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20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선교부 통장에 매달 적립한 금액이 2천만 원 조금 넘는 데 은퇴 비자를 위해 3개월 동안 기도를 주셔서 퇴직금보다 더 많은 은퇴비자 준비 비용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기념일 행사를 17일에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행사를 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학교에서부터 동네 바랑가이(동사무소)까지 행진을 하였습니다. 행진을 할 때는 드럼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었고, 실론폰과 멜로디언으로 여러 곡을 연주하였습니다. 전에 보다 드림이 몇 개 더 추가되어 조용한 시골 마을 안이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행진을 하는 중에 선두에 있는 학생들은 빨강색과 파랑색 색깔의 깃발을 흔들며 걸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랑스러워하였고 주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며 박수

피겨를 장만하여 이젠 걱정이 줄었습니다. 전기가 나가지도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잠보양가는 한국인의 여행이 금지되어 있기에 제가 카가안 데오로까지 11시간 운전해 가서 천안 대명교회에서 오신 박목사님과 집사님 부부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3시간을 잠 잠 다음에 12시간을 운전하여 다시 잠보양가로 돌아왔습니다. 잠보양가 도시에서 카가안 데오로 도시까지 도로가 한국처럼 쪽 뺨이 있으면 6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중간에 산이 많고, 도로 공사를 곳곳마다 많이 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걸렸

음료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3. 학교 담당 공사
저희가 띵빠빠 마을 안에 새희망 학교를 설립한지는 6년이 지났고 개교기념일 행사는 3회를 맞이 하였습니다. 필리핀 안에서는 땅을 구입하면 먼저 하는 일이 담당을 쌓는 일입니다. 땅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필리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담당을 쌓고 나면 담 안에 관리인을 두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허락 없이 들어와 집을 짓고 살다가

니다. 재정이 될 때마다 몇 년에 걸쳐서 학교 담당 공사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불안정한 필리핀에서는 담당 공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 땅의 면적은 3,700스퀘어(m²)입니다. 이제까지 담당 공사는 ¼를 마쳤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학교 안에 개, 고양이, 동네 돼지, 염소, 닭, 뱀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농구대가 있다 보니 아무 때나 주변 사람들이 들어와 농구를 합니다. 농구만 하고 돌아 가면 다행이지만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학교 안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형광등이나 전구를 가지고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안의 기숙사 건물에 여학생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머물기에 안전이 더 필요합니다. 학교 담장을 전체 벽돌과 시멘트로 작업하면 더 튼튼하고 좋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기에 절반만 벽돌로 쌓았고 벽돌 위의 절반은 철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은 담장 공사 ½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동역자분들의 정성어린 끊임없는 기도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1월 9일 마닐라 은퇴비에 가서 드디어 은퇴비자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3개월 걸리는데 한 달 만에 빨리 나와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필리핀 남부 잠보양가 선교지에서 비자 걱정 안하고 사역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2. 개교일 기념행사

매년 11월 11일은 저희 띵빠빠 마을 새희망 학교 개교기념일입니다. 이번에는 비가 자주 내려 개교

를 치주었습니다. 여기 필리핀은 학교에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7월: 영양 급식의 날, 8월 타갈로그(국어의 날), 10월: 과학의 달, 11월 우리 학교 개교기념일, 12월 크리스마스 행사, 3월 졸업식이 기본적으로 있고 학교마다 더 있습니다. 여긴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잘 나가는 바람에 행사 당일 날에 당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 선풍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피커와 마이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안 대명교회에서 헌금해주시 재정으로 무선 스피



습니다. 대명교회에서 헌금해 주신 재정으로 스피커를 장만하였고 개교기념일 행사 날에 학생들과 선생 그리고 직원 모두에게 빵과

나가라고 하면 집을 만든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교 건물을 먼저 짓고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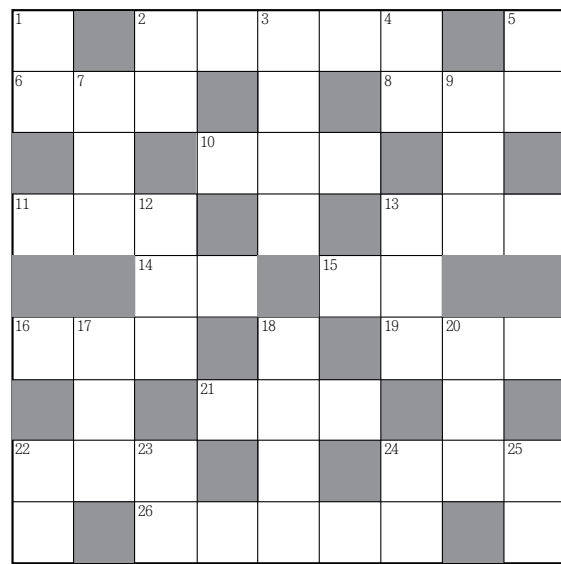
기도제목

1. 선교지에서 늘 안전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2. 남은 학교 담당 공사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3. 새희망 학교를 운영할 때 필요한 재정이 늘 공급되도록
4. 예배에 무슬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도록
5. 마닐라에서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현탁이가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오정운 선교사
ohgongtak@hanmail.net

십자말 • Cross Word (147)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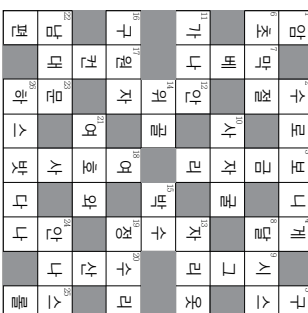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2. 수리아국이 베니게를 합병한 후에 두 나라 이름을 병칭하였다(막7:26).
6.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수장절이라고도 한다(요7:2).
8. 노아의 아들 야벳의 손자요 아완의 아들이다(창10:4).
10. 백수(百獸)의 왕이라 불리는 짐승을 넣어 둔 굴(단6:7).
11.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복지로 인도하셨다(민33:40).
13. 잘 때에 입는 옷(산22:17).
14. 뼈가 어그리짐. 아담이 천사와 씨름하다 이렇게 됨(창32:25).
15. 손뼉을 친(왕하11:12).
16. 도와서 견져준 사람(삼3:9).
19. 머리 위의 수구멍이 있는 자리(창49:26).
21.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창2:4).
22. 대한민국 국보 제1호(상식).
24. 대제사장 가아바의 장인(요18:13).
26. 학사 에스라의 좌편에서 있던 자 중의 한 사람(느8:4).

<세로 푸는 열쇠>

1. 바다 속에 보이지 않는 바위(행27:29).
2. 절개를 지킴(창38:11).
3. 포근하고 아늑한 집(사60:8).
4. 검은 천막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아1:5).
5. 노아의 손자요 함의 장자요 니므롯의 부친(창10:6).
7.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지방 이름이며 스와의 아들 이름(대상2:49).
9. 레위의 증손이요 고라의 형제이다(출6:21).
12.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욘16:2).
13. 보라색의 투명한 6각 기둥의 결정체(창28:19).
17. 바라건대.....(창12:13).
18. 유대국의 제7대 왕(왕상15:24).
20. 예수를 신봉하는 여인이나, 그 소유로 주를 봉사하였다(눅8:3).
22. 아내의 배우자(창3:6).
23. 스승의 집. 문 아래(행22:3).
24.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장수한 여인. 비누엘의 딸(눅2:36).
25. 아비엘의 부친이며 기스의 조부(삼상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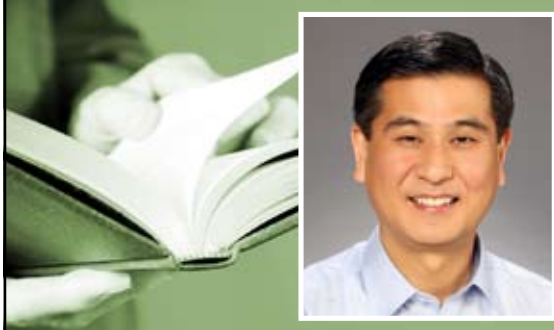
십자말 정답(147)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h3>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회: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화-토)</p> <p>Tel: (718) 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cb.org</p>	<h3>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cb.org</p>	<h3>뉴욕새벽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10:30</p> <p>Tel: (917) 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민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Fax: 없음),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생명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10:30</p> <p>Tel: (718) 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p>	<h3>뉴욕순복음인도교회</h3>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18) 461-7835, CP: (718) 388-1777 45-8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ntech.com</p>	<h3>뉴욕초대교회</h3>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DM영양예배: 오후 1:30 필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p> <p>Tel: (347) 502-2571, Fax: (347) 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ochurch.org</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p> <p>Tel: (201) 342-9194, Fax: (201) 3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3>리빙스톤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창립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3: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 371-7171, Fax: (718) 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h3>에벤에셀선교회</h3> <p>담임목사: 최창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718) 9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c.org/</p>	<h3>예사랑교회</h3> <p>담임목사: 손환근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347) 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p>	<h3>윈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886-4040, Fax: (718) 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p>	<h3>윈즈인교회</h3> <p>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672-1150, Fax: (718) 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h3> <p>■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 N.Y.: Tel: (718) 986-4400 Fax: (718) 9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p>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교회역시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2)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어거스틴(4) -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는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영원한 나라를 기쁨으로 약속 받았음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일들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나그네와 순례자의 마음가짐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앙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은 먼저 종말 신앙과 부활 신앙에 굳건히 서며, 그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질문: 선과 악으로 뒤섞여 우리를 혼란시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가 담겨진 방대한 자신의 지식은 섬세하게 표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진리에 정교하게 여과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관심거리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종말로 향해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성경적 답을 제공해준다.

어거스틴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 책을 구성하였다. 처음 10권은 변증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1권에서 5권은, 그가 이 책의 저작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바, 로마의 멸망이 기독교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다. 6권에서 10

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그들의 역사관을 수용하는데 있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성경에 드러난 역사관,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종말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에 친히 참여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적인 진리에 비추어 정리하고 증명하려 하였다. 그 결과, 창조-타락-구속-종말로 요약할 수 있는 역사관이 구축되었으며, 이로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세속적 역사관과 결별하게 된 것이다.

어거스틴은 역사관 설명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의 11권을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절대로 악하지 않다. 그럼 악의 기원은 무엇일까? 어거스틴은 12권부터 14권에서 분명하게 답한다.

악이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등

약한 시대에 교회는 현재의 낮은 처지로부터 미래의 높은 지위로 올라갈 준비로써, 공포심으로 가슴을 찢리며 슬픔으로 괴로우며 노고와 시험을 당할 염려 때문에 불안하면서도, 오직 의망 가운데 건전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다. 이 기간에 교회에는 버림받은 자들이 선한 자들과 섞여 있어서 양쪽이 다 복음의 그물 안에(마13:47-50) 함께 모여 있다" (신국론, 18.49).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세상의 도성에 속한 자들은 유기를 받은 자들이다. 어거스틴의 이원론적 사고는 그가 관심을 가졌던 플라톤 철학을 토대로 그의 역사관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가 대조하는 두 도성, 즉 '천상'과 '지상'의 구분은 초월의 영역에 있는 '이데아'와 내재의 영역에 있

"결국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수난 전과 부활 전에 그를 보고 들은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후계자들이 무서운 박해와 각종 고문과 순교의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 표징과 징조와 자기의 권능의 실례, 그리고 성경의 역사로 증거해 주셨다" (신국론, 18.51).

두 번째는, 이단자들의 영적 횡포는 정통 신학을 확립하는 자극제가 된 것이다.

"불경건한 도성의 지배자인 마귀는 이 세상에서의 순례자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항해서 그 앞잡이들을 동원하지만, 해를 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확실히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가 역경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창성하게 하심으로 위로하는 수단을 주시며, 창성함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역경으로 훈련하는 수단을 주셔서, 두 가지 환경이 서로 보충하게 하시며..." (신국론, 18.51).

어거스틴은 약한 시대를 지나가야 하는 교회를 향하여 분명한 어조로 권면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보다, 도리어 종말의 시기까지 세상의 악이 창궐할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의

그때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신국론 20.27).

이때 세상의 도성에 속한 자들은 지옥의 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형벌은 사실적인 것이다.

"동물이 불 속에서 타면서도 타 버리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충분히 입증했다. 이것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하는 일이다" (신국론, 21.9).

반대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히 불변하는 의지에 의하여, 약속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은 육체의 부활과 그 후에 지속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다.

"이 신령한 몸이 무엇이며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위대하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직 경험한 일이 없는 우리로서는 경솔한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품은 희망의 기쁨에 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며..." (신국론, 22.21).

우리가 사모하는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산 소망을 제공해준다.

종말을 향해가는 세상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답 제공

하나님 도성과 세상 도성의 대립 갈등 예견... 하나님께 위로받고 정진

2) 성경이 보인다 - 누가복음 16:19-31; 고린도전서 15장; 빌립보서 3:17-21; 요한계시록 20:12-14

■ 어거스틴의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이 후대 교회에 남긴 많은 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저서를 꼽는다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다. 어거스틴이 이 책을 기록하기 시작한 동기는 410년 로마의 멸망과 직결되어 있다. 로마의 멸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절대적인 힘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통치하던 로마가 어떻게 알라릭이 이끄는 고트족과 노예들에 의해 점령과 약탈을 당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을 불리하게 몰아가는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로마가 이교도들에 의해서 파괴된 제국의 원인이 바로 기독교였다는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져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거스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하여 변증하기로 작정하고 413년 초에 저술을 시작하였다. 그가 426년에 이 책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책의 저술 외에도 다른 할 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내용과 구성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은 22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서적이다. 이 책을 손에 처음 들면, 언제 책임감을 마칠 것인가 염려가 될 정도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결코

권을 이 세상의 행복을 이끄는 힘이 이교신들에게 있기에 반드시 그들을 숭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거스틴의 성경적 역사관을 접할 수 있는 나머지 12권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는 이 부분을 크게 셋으로 나누었는데, 11권에서 14권까지는 두 도성, 즉 '하나님의 도성' 또는 '천상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또는 '지상의 도성'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15권부터 18권은 두 도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머지 부분은 두 도성의 마지막 운명을 묘사하고 있다.

■ 두 도성

어거스틴 사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 이는 자신의 생애를 진술하게 기록하며 401년에 집필을 완료한 "참회록"의 핵심 사상이다.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을 집필할 당시 어거스틴의 눈에 들어 온 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완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고 있다고 확신하였던 것이다.

어거스틴은 로마 역사가들의 글

지고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죄를 통하여 악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15권부터 18권은, 역사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가?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 도성의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교와 이교들의 갈등 속에서 현재까지 드러났다. 어거스틴은 구약의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기였음을 역설하였다. 나아가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으므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음을 강조한다.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 새로운 시대에도 이전의 갈등이 지속된다. 심지어 버림받은 자들과 선택받은 자들이 함께 이 땅에 공존하는 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공존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런 형편은 교회의 탄생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시간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현상계'를 분명하게 나누는 플라톤의 사상에 기인한다. 어거스틴의 위대성은 그가 한 헬라 철학자의 사상을 소화하여 자신의 신학 체계의 틀을 구축하는데 사용하면 서로 그 신학의 내용은 그가 깊이 연구하고 이해한 성경의 진리를 중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세상의 종말까지

어거스틴은 세상에 속한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묵과하지 않는다. 심지어 복음에 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기도 해야 한다. 또한 성도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이단의 지속적인 영적 횡포에 노출되어 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실까? 이는 우리뿐 아니라 어거스틴의 질문이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은 이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절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두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성도들이 받는 고통을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도구이다.

위로를 받으며 정진하라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마지막 부분인 제 20-22권에서 자신의 성경적 종말론을 정리해 놓았다. 대조되는 두 도성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이 세상의 끝 날이 되면, 악과 선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선을 누리게 된다. 그는 이것을 평화라고 소개한다. 이 평화는 성도들의 목표이며 완성이다.

"평화는 심히 위대한 선이므로, 이 지상의 죽을 인생에서도 평화라는 말같이 들어서 즐거운 말이 없으며, 평화처럼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없으며, 평화보다 더 철저한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 (신국론, 19.11).

그렇다면 세상의 종말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도성이 승리한다. 세상의 종말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두 도성에 속한 자들이 분명하게 구분된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상과 벌의 차이는 의의 태양 아래서 영생의 광명으로 밝혀질 것이다. 허무한 금생을 비추는 이 태양 아래서는 이 차이가 알려지지 않지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을 가르치는 종교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종말을 사모하며 천국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실하게 살려할 수록, 더욱 그 어려움의 무게가 커진다는 현실을 이겨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 현실 가운데 의심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역사관을 지닐 때에, 이런 환경을 넘겨하게 이길 뿐 아니라 더욱 유익을 얻을 수도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날이 오면, 이 세상의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자. 마라나타!

covenantcho@yahoo.com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On campus or Chicago, IL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